우리

산업통상자원가족의 마음을 담은

+

2016 Vol. 123

www.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커버스토리
이번호 '울림'표지는 주형환 장관님(정가운데)과 윤성준 주무관, 김지연 사무관, 윤선민 사무관, 윤재웅 사무관, 홍다운 주무관, 황상윤 주무관께서 장식해 주셨습니다(왼쪽부터 시계방향)

노력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그것은 습관을 잃는다.습관은 버리기는 쉽지만,
다시 들이기는 어렵다.

– 빅토르 마리 위고



CONTENTS

울림 2016년 Vol. 123
산업통상자원부 사보 '울림'

발행일 2016년 06월
발행인 주형환
발행처 산업통상자원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보 '울림' 편집실)
편집장 안홍상 **편집간사** 이영아
편집부간사 고운정, 권용균, 김동욱, 안여선
편집위원 고채린, 김건혁, 김수희, 김준경, 노정림, 윤선민, 윤영범, 이예원, 이정남, 장선화, 정의라, 조영길
사진 임용혁, 임용택
연락처 **TEL.** 044-203-5347, **FAX.** 044-203-4768
디자인 (주)엔투디 **TEL.** 02-512-3296
제작/인쇄 나모기획 **TEL.** 02-503-5454

산업통상자원부 사보 '울림'은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정성을 담아 만들어 나가는 사보입니다. 독자님들의 따끔한 질책이나 애정 어린 충고도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주제의 글이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편집해 '울림'에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글을 가까운 편집위원에게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DO DREAM

06 인사말 / 주형환
창조적 사고, 위기가 곧 원동력입니다

08 어떻게 지내십니까 / 안미정
내 인생 최고의 선택

10 출입기자 칼럼 / 박병립
사람이라, 인간이라 따뜻하다

12 바다건너 온 편지 / 문병철
베트남의 경제 중심, 호치민에도 상무관이 있다

16 새 얼굴 새 가족

20 칭찬합니다 / 신성필
산업통상자원부의 꽃,
주무 사무관과 서기관님들을 칭찬합니다

22 우리 局을 소개합니다
정책기획관실을 소개합니다!

32 아내(남편)에게 쓰는 글
2016년 추운 겨울 어느 날 / 윤성준
사랑하는 남편에게 / 김지연
곁에 있어도 그리운 내 사람 / 정지선
견우와 직녀 이야기 / 정동원

SPECIAL THEME 소통 장벽 넘는 SNS 메신저

42 이상한 나라의 Poll
산업부 가족들에게 SNS란?

46 네모 톡.톡.톡
직장에서의 진정한 소통이란 □이다

테마에세이
48 이 시대의 새로운 소통방식 / 김나영
50 에티켓만 지킨다면 유쾌한 소통해결사 / 황상윤
52 어느덧 내 인생의 절친, SNS / 홍다운
54 추억 속 친구를 불러모으다 / 장선화
56 소통의 창구? 직장인의 족쇄? / 이강
58 엄지가 쉬면 마음이 불안한 이유 / 김영경
60 SNS로 통하는 이 시대의 사랑법 / 이예원

A ULLIM

울림 휴게실
64 밴드 좋아하세요? / 강초롱
68 신입 사무관의 산업부 적응기 / 안준호
70 중국음식 한담(閑談) / 윤선민

72 명물소개 / 윤재웅
바둑커플 〈윤재웅 4단과 김세실 2단〉
산업부의 미생

75 동아리소개 / 박충희
배드민턴 동호회

78 세종 플러스 / 윤선민
가족나들이와 자녀 교육을 한 번에!

80 사진에세이 / 임용혁
하늘, 꽃에 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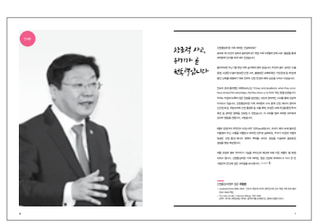
82 용어의 발견 / 김건혁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IT관련 용어들

84 건강생활백서
재미있는 건강상식~

86 생활의 지혜
알아두면 유용한 스마트폰 앱

88 편집위원 소개

90 이번호를 준비하며


인사말


출입기자 칼럼


남편에게 쓰는 글


테마에세이


울림 휴게실


건강생활백서

향기롭다, 꿈

온 세상이 싱그러운 계절.
우리의 꿈도 활짝 피어납니다.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리고
모두에게 퍼져가는 꿈의 향기.
도처에 넘치는 짙은 향기가
깊은 울림이 되는 계절입니다.

06 인사말 I 창조적 사고, 위기가 곧 원동력입니다

08 어떻게 지내십니까 I 내 인생 최고의 선택

10 출입기자 칼럼 I 사람이라, 인간이라 따뜻하다

12 바다건너 온 편지 I 베트남의 경제 중심, 호치민에도 상무관이 있다

16 새 얼굴 새 가족

20 칭찬합니다 I 산업통상자원부의 꽃, 주무 사무관과 서기관님들을 칭찬합니다

22 우리 局을 소개합니다 I 정책기획관실을 소개합니다!

32 아내(남편)에게 쓰는 글 I
- 2016년 추운 겨울 어느 날
- 사랑하는 남편에게
- 결에 있어도 그리운 내 사람
- 견우와 직녀 이야기

DO
DREAM



창조적 사고, 위기가 곧 원동력입니다

산업통상자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표지에 제 사진이 실려서 놀라셨지요? 취임 이후 5개월여 만에 사보 '울림'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월 취임 이후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부진의 골이 깊어진 수출 환경, 시급한 수술이 필요한 산업 구조, 불필요한 규제에 묶인 기업 환경 등 제 앞에 놓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산업 현장과 해외 곳곳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인도의 초대 총리였던 네루(Nehru)는 "Crises and deadlocks when they occur have at least this advantage, that they force us to think"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도 작금의 녹록치 않은 현실을 밤낮없는 고민과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조금씩 이겨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 가족 여러분의 고뇌 끝에 산업·에너지 분야의 신산업 육성, 유망소비재 산업 활성화 등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 개선을 통한 투자 촉진 등 굵직한 정책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6월의 탄생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주(pearl)입니다. 조개가 패각 속에 들어온 이물질이 주는 고통을 아름답고 화려한 진주로 승화하듯, 우리가 지금껏 어렵게 일궈온 산업·통상·에너지 정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거듭하여 풍요로운 결실을 맺길 희망합니다.

여름 초입에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예년에 비해 더운 여름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시 한 번 그동안의 헌신에 깊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MOTI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 Jawaharlal Nehru(1889–1964) : 인도의 독립 투사이자 정치인이며, 인도 독립 이후 초대 총리(1947–1964) 역임.
– The Unity of India : Collected Writings, 1937–1940
(번역 : 위기와 교착상태는 적어도 생각하기를 강요당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특허법인 이룸리온 **안미정** 대표변리사

내 인생 최고의 선택





과학자, 공직자의 옷을 입다

몇 해 전부터 5월 이맘때면 즐거운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모교의 진로탐색 특강으로, 학부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선배를 초청하여 강의도 듣고 대화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 강의가 유난히 인기 만점이라는 담당 교수님의 과장된 멘트도 한몫하고 있지만, 이 강의가 유난히 마음 설레는 이유는 바쁜 일정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초롱초롱한 눈망울의 후배들과 함께 대학 졸업 이후의 30여 년 여정을 돌이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공계 출신으로는 흔치 않은 파격적인 진로 선택으로 힘든 때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참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고, 그 시발점은 바로 1996년 10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1994년 미국에서 박사 학위 취득 후 대덕 연구단지에 둥지를 틀었을 당시만 해도, 전 유전자치료 실험에 열중하는 평범한 바이오 연구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OECD 가입 후 우리 정부에도 각 분야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는 신문 칼럼을 우연히 접한 후, 공직에 대한 호기심과 도전 의식으로 산업부(당시 통상산업부) 박사특채를 지원하였고, 1997년부터 산업부 가족이 되었습니다.

창조적이고 놀라운 신세계 입성

최초 면접 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공계 여성(심지어 아줌마) 박사가, 그것도 10여 년의 미국 생활 이후 과연 공직에 적응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백지에 그림 그리듯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여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저히 안될 것 같은 이슈들도 부처 간 끈질긴 협의를 통해 해결해내는 산업부 선배님들의 모습은 연구만 하던 그간의 제 인생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창조적이고 놀라운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산업 육성의 최전방에 서 있다는 사명감으로 후퇴없는 돌진을 하시던 용장(勇將), 맹장(猛將), 덕장(德將)의 선배님들 및 동료들과 함께 한 산업부에서의 날들은 많은 자부심과 즐거움, 보람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10년간 공직에 머물며 2007년 특허청 환경화학심사과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여 변리사의 길에 접어들었고, 2011년 산업부 R&D 전략기획단 융합신산업 MD와 IP 비즈니스 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부사장직을 역임한 후, 현재 특허법인 이룸리온의 대표변리사를 맡고 있습니다.

특허법인 이룸리온은 바이오/화학, 기계, 전자/통신 분야 및 상표/디자인 분야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IP 경영 컨설팅을 수행하는 약 80명 규모의 IP 전문 로펌입니다. 최근 IT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하는 글로벌 경제에서는 융합 및 창조적 기술혁신을 이끄는 촉매제로 지식재산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FTA, TPP 등 새로운 글로벌 무한 경쟁 체제에서 생존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IP 경쟁력 및 역량 강화는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허법인 이룸리온은 또한 출원, 심판, 소송 뿐 아니라 신규 사업 전략과 연계한 IP 창출, IP R&D 전략 수립, IP 경영 컨설팅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는 점에서 타 특허법인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의 IP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는데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은 20여 년 전 산업부 선배님들로부터 골수에 박히도록 배운 기업 중심의 마인드와 애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나는 산업부 혈통

그간의 다양한 경력으로 인하여 지난 10여 년간 여러 부처에 자문하고 회의에 많이 참석해오고 있습니다. 회의 중 공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에 직결되는 정책이면 저는 끝까지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직자, 특히 산업부의 피가 흐른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으며, 가끔씩은 이러한 제 자신이 어이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과 열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기에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올해의 특강에서도 어김없이 나온 질문이 있습니다. "선배님의 커리어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그럴 때면 늘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일 잘한 선택은 1996년 10월 어느 날, 통상산업부 공고를 보고 지원을 결심한 것이라고요. 돌이켜보면, 이공계 여성(아줌마) 박사가, 그것도 10년의 미국 생활 이후 공직에 도전을 해 보겠다는 것은 당시 매우 무모했지만, 그 대상이 산업부였고 훌륭한 선배님들과 따뜻한 동료들이 있었기에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가족으로서 한걸음씩 배우고 익혀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 마음의 고향, 인생의 스승인 산업부의 선배님들과 가족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MOTIE

출입기자 칼럼



디지털타임스 **박병립** 기자

사람인 것 같다. 기계도, SNS도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정감이 있는 것 아닐까. 가상의 공간인 SNS가 단순히 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기쁨과 슬픔 등 우리의 정서를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있어서인 것 같다. SNS가 과시의 수단이 아닌 인간적인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라본다. 그리고 나도 따뜻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이라, **인간이라 따뜻하다**





SNS세상도 건조하지만은 않다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하지 않는 편이다. 왠지 시간을 허비하는 느낌이 들어서다.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상을 알리고, 안부를 묻는 SNS는 전화, 이메일처럼 인류에 큰 편리함을 제공해준 소통의 수단이며, 이 같은 장점은 참으로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계정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페이스북(페이스북)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시 페이스북에 들어가게 됐다. 아는 선배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다. 그 선배도 페이스북을 끊었다가 지난 2월부터 다시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딸아이가 아픈데 완쾌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그 완쾌를 함께 기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우리 신문의 기사, 산업부 스크랩을 안 읽을 때도 있지만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선배의 글을 꼭 찾아서 읽는다.

'좋아요'도 누르고, 힘내라고 댓글도 단다. 그 선배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가족을 만나고, 댓글을 다는 그 선배의 선후배와 친구에서 내 선후배와 친구를 본다. 그리고 메마른 내 마음에 무언가 다양한 감정이 일어난다.

따스함은 배려로부터

차가운 기계, 그 기계가 만들어낸 가상의 공간에서 어머니의 품 같은 포근함, 아버지의 목말 같은 즐거움이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 그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사람 사는 이야기, 그 모습이 멀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함, 포근함, 즐거움, 슬픔 등 우리의 감정을 전파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 같다. 인간(人間)의 한자 풀이를 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다. 공자는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인(仁)으로 봤다. 인은 사람 인(人)과 두 이(二)가 합쳐진 글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바로 인이다. 공자의 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충서(忠恕)를 이야기했다. 충은 가운데 중(中)과 마음 심(心), 서는 같을 여(如)와 마음 심(心)이 합쳐진 한자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은 마음이 충이며,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이 서이다. 공자는 충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충과 서는 도에서 어긋남이 멀지 않으니, 나에게 베풀어짐을 원치 않는 것이라면 남에게도 베풀지 마라."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남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충서이며 이것이 바로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이며 이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해야 하는 행동인 것 같다.

인공지능도 결국 사람으로부터 출발

최근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다. 점심, 저녁 식사 장소에 가면 여기저기서 알파고 이야기가 한창이다. 특히 3월 13일 4국에서 이 9단이의 승리하자 언론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회복' 등을 거론하며 대서특필했다. 이전에도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와 공포 등 관심은 적지 않았으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바이센테니얼 맨' 등 영화의 소재로도 등장했다. 이들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휴머니즘, 인류애 아닌가 생각한다. 터미네이터 T-1(아놀드 슈왈제네거), 앤드류(로빈 윌리엄스)도 처음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슬픔, 기쁨, 사랑 등 인간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했다.

사람인 것 같다. 기계도, SNS도 사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따뜻하고 정감이 있는 것 아닐까. 가상의 공간인 SNS가 단순히 소통의 수단을 넘어서 기쁨과 슬픔 등 우리의 정서를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사람이 있어서인 것 같다. SNS가 과시의 수단이 아닌 인간적인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발전하길 바라본다. 그리고 나도 따뜻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MOTIE



바다건너 온 편지



호치민총영사관 **문병철** 상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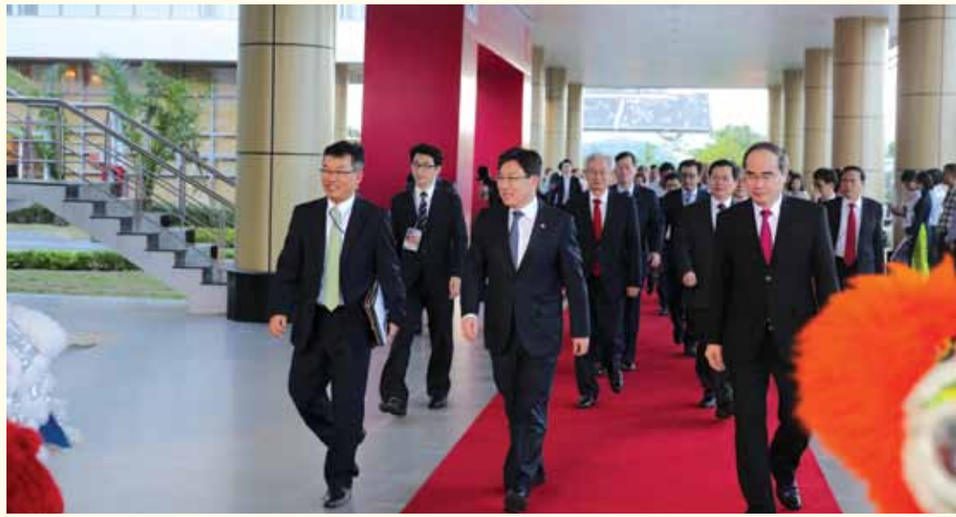
베트남의 경제 중심, **호치민에도 상무관이 있다**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호치민총영사관에 상무관으로
파견나와 있는 문병철입니다. 2014년 8월에
호치민발 비행기를 탔으니, 벌써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상무관으로 파견 나오면
가장 무서운 분이 본부 사무관님인지라,
정의라 사무관의 특별한 지시에 힘입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면으로나마
호치민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길거리 오토바이, 아오자이 그러나

흔히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베트남 하면 베트남 전쟁, 길거리의 오토바이, 하얀 아오자이와 갓 모자를 쓴 여성 등등 다양한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베트남이 아직도 전쟁의 상처가 곳곳에 남아있고, 국민소득 2,000달러의 저소득 국가로 길거리에는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오토바이가 많습니다. 인구 1억 명에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3천만 대이니 성인이면 누구나 오토바이 한대쯤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1975년 전쟁이 끝나고 통일된 베트남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시달리다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와 시장경제를 접목한 1980년 도이머이(쇄신) 정책 추진과 함께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경제발전이 우리나라보다 20년 남짓 뒤진 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1970~80년의 한국 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베트남 특히, 이 곳 호치민 인근의 사정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2007년 WTO 가입 이후부터 새로운 나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출 1,621억 달러, 수입 1,656억 달러로 전체 교역규모가 3,277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1/3 정도 됩니다. 매년 교역규모가 10% 이상 성장하고 있고,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교역규모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FTA를 발효하였고, 경제대국인 미국, EU, 러시아 등과 FTA를 타결함으로 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글로벌 경제화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기업 2,500여개, 교민 10만명, 1일 항공편 11편

더욱더 놀라운 것은 한국기업의 투자와 진출입니다.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1988년 집계 이후 3,27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449억 달러 전체 13.7%로 당당히 1위 국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LG, 포스코, CJ, 효성 등등 국내 대기업을 포함하여 많은 섬유 및 신발, 전자부품을 중심으로 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이곳 베트남을 생산 제조 기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진출로 이 곳 호치민은 항상 한국 기업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베트남에 효과적으로 진출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지가 저녁자리 화제의 단골 메뉴입니다.

현재 2,500여 개의 기업이 호치민과 인근 동나이성, 빈증성, 롱안성, 바리아붕따우성 등에 공장을 세우고, 10만여 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남부의 관문인 호치민 공항에는 하루 11편의 비행기가 인천에서 출발하여 도착하고 있으며, 평균 2,000여명의 탑승객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 8월 호치민총영사관에 처음 상무관으로 부임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드디어 우리 호치민에도 상무관이 오셨군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기업들을 위해서 큰 힘이 되어주세요!"란 이야기였습니다. 교민들의 말씀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호치민 상무관의 역할은 참 다양합니다. 물론, 저의 가장 큰 업무이자 역할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베트남 수출과 투자를 확대하는 일입니다. 베트남 시장 현황을 파악하여 기업들에게 전파하여 수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고, 또한 베트남 정부와 경제협력사업을 발굴하여 한국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역할입니다. 이에 더하여, 기업이 2,500여개나 있고, 제도상의 차이로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을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의 시, 성 정부들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도

상무관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는 어떤 기업이 공단과 관리비 분쟁이 있어 공단에서 정문을 바리케이드로 막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제가 그 지역의 성장과 직접 연락을 취해 경찰력을 동원해서 바리케이드를 치우도록 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한국 투자기업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기공식 및 준공식 행사, 기업의 CSR 활동, 경제단체 주관 설명회 등의 행사에 참석하여 진출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역할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바쁘게 하다 보면 기업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 모두 모여 지루하지만 행복한 생활

그럼 업무는 그렇고 개인적인 가족생활은 어떠냐구요? 아시다시피 저는 주재관 생활이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가족들의 생활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호치민이 365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운 지역인데다, 특별히 지방이나 관광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다 보니 가족 모두 집에 모여서 옹기종기, 아웅다웅 모여 있는 게 전부입니다.

워낙에 오토바이가 많아 감히 운전을 직접 할 수 없기에 가능하면 외출을 삼가(?)고, 집에서 한국 인터넷 TV를 보면서, 강아지 3마리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이러저러한 대화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저리 주저리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공무원을 직업으로 택하여 해외에 주재관으로 파견 나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큰 보람이구요, 그 중에서도 가장 즐거운 일은 그 동안 뵙지 못했던 반가운 분들을 타국 땅에서 만나 아름다운 사이공 강을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 가족 많은 분들이 이 곳 호치민을 방문하셔서 저와 맥주 한잔 하면서, 베트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깜언(감사합니다)! ㉾MOTIE



새 얼굴
새 가족

산업통산자원부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Q. 9문 9답

1. 생년월일
2. 자신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3. 원하는 배우자상은?(결혼여부)
4. 산업통상자원부를 오게 된 이유는?
5. 여가시간에 보통 뭐하세요?
6. 자신만의 특기가 있는지?
7. 산업통상자원人으로서 다짐?
8. 20년 후에 이런 모습이었으면
9. 산업통상자원부 가족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7급



무역안보과
고두옥 주무관

1. 1991. 8. 24 (음)
2. 긍정적
3. 엄~청 착한 사람 (미혼)
4. 행정학 전공하면서 특히 관심 있던 분야였어요
5. 동네 걸어다니기
6. 앞으로 만들겠습니다ㅠㅠ
7. 지금 당장은, 과에 도움되는 사람 되기
8. 사적으로 만나든, 공적으로 만나든 괜찮은 선배/후배
9.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표준과
고채린 주무관

1. 1990. 8. 23
2. 오케스트라의 오보에
3. 영혼이 훈남인 사람(미혼)
4. 산업, 통상, 자원 세 단어 모두 매력적이어서
5. 모바일게임, 공원산책
6. 퍼즐게임 클리어, 많이 걷기
7. 산업부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8. 마음이 여유로워 베풀 줄 아는 사람
9. 산업부에 온 후에 좋은 분들과 만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권세미 주무관

1. 1988. 11. 22
2. 차분
3. 서로의 단점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미혼)
4. 재밌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 집순이
6. 예전에 기타 잠깐 쳤습니다
7. 열심히 하겠습니다
8. 인간 냄새 나는 사람
9. 여러 모로 친절히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전력진흥과
김솔잎 주무관

1. 1990. 11. 23
2. 무난무난 둥글둥글
3. 공감능력 있고 듬직한 사람(미혼)
4. 멋있어 보여서
5. TV보기
6. 노래(?)
7.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8. 믿을 수 있는 선, 후배
9. 잘 부탁드립니다 ^^



불공정무역조사과
김애선 주무관

1. 1992. 12. 15
2. 긍정적
3.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미혼)
4. 전공과 잘 맞을 것 같아서
5. 영화 감상
6. 없어요
7.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배우는 자세
8.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
9. 열심히 배워서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상안전기획관실
김용환 주무관

1. 1971. 4. 25
2. 원만함
3. 예쁜 여자와 이미 결혼했습니다
4. 평소에 관심 많았습니다
5. 가족과 함께
6. 끈기
7. 충~~~~~~~성
8. 정년퇴직 후 편안한 노후
9. 모두 사랑합니다



중부광산보안사무소
노영목 주무관

1. 1987. 3. 31
2. 평범, 보통, 무난함
3. 환하게 웃는 사람(미혼)
4. 산업현장과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5. 영화보기, 친구만나기
6. 어떤 곳이든 등 붙이면 잘 수 있음
7. 열심히 하는 모습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8.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
9. 산업통상자원부에 들어오게 되어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
문세민 주무관

1. 1988. 11. 13
2. 착하다??
3. 배려하는 사람(미혼)
4.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5. TV나 영화 보기
6. 클래식 기타
7.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8. 모두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9. 잘 부탁드립니다!



자원개발전략과
서주열 주무관

1. 1982. 4. 20
2. 원만함
3. 내게 힘을 주는 사람(미혼)
4. 산업을 이해하고 다양한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5.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합니다
6. 특기는 없지만 좋아하는 건 많습니다
7. 들어올 때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여유있게 인생을 즐기며 매일이 행복하길
9. 산업부에서 즐겁게 생활하겠습니다



광업등록사무소 등록팀
손빈 주무관

1. 1981. 1. 2
2. 차분하고 조용함
3. 성격이 잘 맞고 예뻐야…(미혼)
4.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을것 같아서
5. 영화 드라마 감상
6. 없네요ㅠㅠ 악기연주 배우고 싶어요
7. 최선을 다하는 산업일꾼이 되겠습니다
8. 재밌게 살고 있었으면…
9. 가족같은 분위기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소재부품정책과
윤신애 주무관

1. 1986. 2. 27
2. 동글동글
3. 취향이 맞는 사람(미혼)
4. 액티브한 업무에 끌림
5. 걸어다니기 or 미드 시청
6. 사람들 바뀐 점 알아차리기
7.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8.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사람
9.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보보호담당관실
서준혁 주무관

1. 1981. 2. 21
2. 깃털처럼 가벼운 허당
3. 와이프(기혼)
4. 전공, 경력에 가장 부합하는 부처여서
5. 딸내미 돌볼 예정
6. 자전거 하루 종일 타기
7. 나가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8. 로또 당첨돼서 즐기며 일하는 나의 모습
9.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부광산보안사무소
심재욱 주무관

1. 1983. 7. 20
2. 다정한 카리스마
3. 와이프(기혼)
4. 자원개발사업 재도약
5. 와이프와 산책, 운동, 요리?
6. 멀티태스킹
7. 어디에서나 믿음직한 모습
8. 자원개발 컨트롤타워
9. 현재를 즐기며 보람차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이세현 주무관

1. 1987. 9. 15 2. 과유불급
3. 무슨 일이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미혼)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어서
5. 잠자거나 자전거를 탑니다
6. 서예
7. 먼저 인사하고,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8. 도움을 줄 수 있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9. 언제, 어디서건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9급



철강화학과
이청하 주무관

1. 1991. 7. 14 2. 외유내유(外柔內柔)
3. 대화를 좋아하고 표현할 줄 아는, 내가 닮아가고 싶은 오빠사람(미혼)
4. 우리나라 산업 컨트롤타워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5. 노래듣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운동에 흥미를 붙여보려구요
6. 다양한 것에 관심이 많아 공감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7. 어느 자리든 제 몫을 다하고 싶습니다
8.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9. 열심히 배워서 예쁨 받는 막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장선화 주무관

1. 1989. 6. 22
2. 무난무던
3. 유쾌발랄(미혼)
4. 아버지 추천
5. 잠 → 독서 → 잠
6. 글쎄요?
7. 열심히 하겠습니다!
8. 미소가 어울리는 사람
9. 산업부의 가족이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랑해요!!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김나영 주무관

1. 1991. 12. 16 2. 외유내강
3.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미혼)
4. 넓고 다양한 업무분야를 접해보고 싶었습니다
5.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청소, 책읽기, TV보기) 혹은 맛집 찾기
6.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7. 항상 긍정적으로! 주어진 일에 임하겠습니다
8.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직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9.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실
임정준 주무관

1. 1980. 10. 4
2. 다정하고 따뜻하고 온화하려고 해요
3. 건강하고 따뜻한 한국여자(미혼)
4. 구조시스템공학과 전기공학을 전공하니 산업부에 오고 싶었습니다
5. 보통은 잠, 주말에는 테니스
6. 자동차 정비(너무 좋아해정비공장 알바도 했을 정도)
7. 병아리 공무원이지만 얼른 배워 제 몫을 다 하겠습니다
8. 닮고 싶은 사람,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
9. 국회에 근무하고 있어 아직 얼굴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원전산업관리과
황상윤 주무관

1. 1988 .2. 8 2. 샤이보이
3. 대화가 잘 통하고, 웃음코드가 잘 맞는 사람(미혼)
4. 다양한 업무와 글로벌 마인드를 배우고 싶어서
5. 드라마 보기, 독서
6. 족구를 잘합니다
7.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와 생활에 임하겠습니다
8. 일로 인정받고 인간적으로 따뜻한 사람
9. 처음이니만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송슬비 주무관

1. 1992. 11. 28
2. 조용
3. 잘 통하는 사람(미혼)
4. 재미있고 보람있을 것 같아서
5. 집에서 쉬어요
6. 없어요
7. 긍정적으로 일하자
8.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9. 산업부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칭찬합니다



주 프랑스대사관 산업통상자원관 **신성필** 과장

산업통상자원부의 꽃

주무 사무관과 서기관님들을 칭찬합니다



외교관과 빠리지엥의 삶을 오가며

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식구 여러분, 빠리에서 상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신성필 과장입니다. 하루는 더디고 1년은 빠르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여기서 잘 지내는지 궁금한 분들도 많다고 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만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어 참 어렵습니다. 특히 여성 명사는 une, 남성 명사는 un을 붙여서 해야 하는데 구분이 안 가죠. 윈 바게뜨, 앙 크로와상 주세요 해야 알아 듣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당분간은 무조건 두 개 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두 크로와상이죠. 두 카페 구요ㅋㅋ. 파리 테러났을 때는 대사관에서 날밤 새우면서 정말 고생도 했습니다. 대사님 모시고 행사하고 있다가 갑자기 테러라 해서 깜짝 놀라고서, 다음날부터 한국인 피해자가 있는지 파리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외교관으로서의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안전합니다. 걱정마시구오세요. 세종에서 담배를 끊었었는데, 을씨년스러운 파리의 겨울을 지내다 보니 담배를 피워야만 할 것 같아서 다시 피우게 되었습니다. 담배를 피워야 뭔가 폼이 나더라구요ㅎㅎ. 아직까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산업통상자원 가족 여러분.

보고서 작성의 명장들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 또 칭찬받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호 글에서 김우진 사무관님과 유통과 식구들에게 과한 칭찬을 받아서 제 스스로를 한 번 돌이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고백합니다. 이제 저에게도 누군가를 칭찬할 기회가 주어져서 참 좋으면서도 어려운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부 주무 사무관, 서기관들을 칭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로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과장님 바로 건너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분들 말입니다. 함 보세요. 살짝, 눈치 못 채게ㅋㅋ.

아마 어제도 제일 늦게 퇴근했겠죠. 윗분들 모임에서 이것저것 챙기느라 고생했을 수도 있구요. 아니면 수습 사무관 보고서 칼질하고, 미안한 마음에 없는 돈 탈탈 털어 치맥 사주고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보고서들은 주무 사무관, 서기관들이 주무릅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과장님들도 주무의 필력이 없으면 빈 결재판만 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무님들이 밤을 새워가며 다듬는 그 손끝에서 정책의 모양을 갖춘 보고서가 나옵니다.

저도 사무관 시절에 보고서 잘 쓴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었던지라, 주무 사무관의 모니터만 보고 있었던 적도 많습니다. 제 머릿속에 벙벙했던 생각이 그 손끝에서 똑 부러지는 표현으로 나오는 걸 보고 있노라면 감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손 끝에서 바람소리가 휙휙 나고, 눈에서는 레이저가 발사되고, 입을 열면 국가 정책이 튀어나오는 우리의 주무 사무관, 서기관님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의 꽃입니다. 정책의 일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우리 모두를 끌고 나가는 자랑스러운 주무 서기관, 사무관들께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분들이야말로 가장 힘들고 가장 약한 분들이라는 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게 많기 때문에 고민도 많고, 마음에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쿨한 모습을 보이기도 어렵습니다. 실국장님보다 더 소속 실국에 대한 평가에 민감하고, 직원들을 챙겨야 하는 승진심사나 유학 선발 경쟁에는 자기 일같이 나섭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불러보고 싶고 드러내서 칭찬하고 싶은 이름들이 많지만 굳이 부르지 않아도 제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한 잔이라도 더 하고 올 걸, 담배 한 대라도 더 같이 즐기고 올 걸 하는 후회도 됩니다.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일한다

제가 주무 사무관일 때 모셨던 이재홍 당시 초임과장(현 미래부 국제협력관)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술에 취한 기분에 "형님! 그러면 뭘 위해서 일을 하는 거에요?"했더니, 촉촉한 눈빛으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하는 거지"하시던 그 순간…. 우리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일을 합니다. 공들인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신경 못 쓴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단 하나 아름답게 남는 게 추억입니다.

제 가장 아름답고 선명한 추억의 한 순간이 바로 주무 사무관, 주무 서기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무 서기관, 사무관님들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정책 고민에만 너무 빠지지 마시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낯선 땅에서 산업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주무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단들 하십니다. 힘들 내세요! 우리 모두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중에 말입니다. 좋은 날이 도둑처럼 오면, 세월이 훔쳐가지 못한 추억을 다시 불러내서 "그 땐 그랬지 말입니다"하고 한 잔 멋지게 해야죠. 그럼 그날을 상상하면서, 다음 칭찬의 글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보선 서기관에게 넘깁니다. 빠리에서 신성필 과장 드림. ^–^ MOTIE



우리 局을
소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컨트롤 타워

정책기획관실을 소개합니다!



산업부의 버팀목

60명의 임직원이 함께하고 있는 정책기획관실은 윤갑석 국장님을 필두로 우리 부의 예산, 조직, 법령, 정보보안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총괄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국이 흔들리면 우리 부가 흔들린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멋진 직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누구보다 이타적인

정책기획관실은 우리 부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일선에서 외부 기관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대외업무부터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의 교체까지… 나보다는 우리 모두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기획재정담당관실, 창조행정담당관실, 규제법무담당관실, 정보관리담당관실, 정보보호담당관실! 이 개성있는 5개 과를 이루고 있는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국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윤갑석 국장



호탕한 웃음과 유쾌한 말씀으로 항상 직원들을 편안히 대해 주시는 우리 국장님~ 정책기획관에 부임하시고 직원들 사진 하나하나를 보며 이름을 외우시던 자상하시고, 인간적인 매력에 흠뻑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도선 주무관



첫 인상은 도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유주얼 서스팩트와 식스센스급 선하고 아름다운 미소로 국장실을 오가는 사람들을 훈훈 하게 반겨주십니다. 작년 8월 새신부가 되신 후 더욱 진한 미소로 국장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담당관을 소개합니다

(뒷줄 왼쪽부터) 양정화, 윤성준, 정민구, 곽현숙, 백경렬, 최남호, 이정화, 고건우, 신정환
(앞줄 왼쪽부터) 강호건, 송충섭, 김창완, 유재호, 이재우, 유경균

작성자 : 유경균 주무관

기획, 예산, 결산 그리고 국회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대외 업무의 선봉이자
마지막 보루인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직원들을 소개합니다.

최남호 과장

든든한 방파제와 등대. 우리 과 직원들이 떠올리는 과장님의 이미지입니다. 직원들에게는 항상 자상하시고, 업무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스마트하신 최남호 과장님! 밤샘 작업이 많은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직원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과장님입니다.

강호건 주무관

* 이하 가나다 순

샤프하고 핸섬한 외모, 왠지 기획재정담당관실과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우리부 대표 미남 강호건 주무관! 기획재정담당관실의 평균 외모를 단숨에 끌어 올린 강호건 주무관은 준수한 외모에 해병대 근성과 마라톤 동호회에서 쌓은 인내심으로 대단한 업무 추진력을 겸한 엄친아입니다.

고건우 주무관

기조실의 자랑스러운 얼굴 고건우 주무관님! 다들 총각인 줄 알지만 아들이 이제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는 모범 가장이랍니다^^. 멋진 외모와 더불어 항상 차분하고 깔끔한 업무처리로 과원들에게 사랑을 독차지하는 고건우 주무관님! 항상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고건우 주무관님 포에버!

곽현숙 주무관

조선시대에 신사임당이 있었다면 기획재정에는 곽현숙 주무관님!으로 통한다. 아침마다 공복으로 출근하는 이에게는 삼육두유와 구운 계란을,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보내는 이에게는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와 아이스크림을, 앉으나 서나 기획재정을 사랑하고 챙기는 마음으로 가득하신 곽사임당! 알뜰살뜰한 그분의 손길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김창완 사무관

조용하지만 강한 남자! 평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하지만 일단 업무에 불이 붙으면 거침이 없는 김창완 사무관님. 기획재정담당관실에 합류한 기간은 짧아도 나름의 유머 코드와 순박한 웃음으로 10년지기 같은 느낌을 주는 최고의 동료입니다.

송충섭 사무관

푸근한 웃음과 인자한 미소로 후배들을 다독여 주시는 송충섭 사무관님. 온갖 평가와 국회 심사 등 갖가지 궂은 일을 맡아야 하는 집행과 결산을 총괄하고 계심에도 항상 넉넉한 자세로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신정환 주무관

넘치는 위트와 유머로 한때 우리 부 각종 행사때 마이크 하나로 직원들에게 웃음을 주며 사회을 도맡았던 능력자, 신정환 주무관!! 지금은 예쁜 딸의 아버지이자 기획조정실 실서무로서 일꾼 역할을 묵묵히 하고 있지만, 한 번씩 툭 던지는 멘트에서 역시 그의 진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정화 서기관

말이나 글로 아무리 묘사해도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표현하기 부족한 산업부 최고 미녀, 양정화 서기관님! 2015년 예산총괄이라는 고된 업무 속에서도 '샤랄랄라' 한 웃음 꽃과 열정의 꽃 향기로 기획재정 사무실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민낯 외모도 반짝반짝 빛나시는데, 2016년 실총괄 서기관님으로 더욱 빛나고 계십니다.

유경균 주무관

두 말하면 입만 아픈 기획재정의 리베로[libero] 유경균 주무관님! 자기 포지션에 얽매이지 않고 국회, 예산, 결산을 넘나들며 기획재정에 감초 같은 묘미를 선사하는 센스쟁이! 기획재정에서 두터운 허리 살을 얻게 되었지만, 올 3월에 득남한 유경균 주무관님은 오늘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능력자입니다.

유재호 사무관

런닝머신 위에서 10km씩 달리며, 매일 밤늦게까지 밝은 눈망울과 미소로 일하는 그 남자, 바로 유재호 사무관님입니다. 얼만 전에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신 사무관님! 이제 우리부의 예산은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직원들과도 항상 유쾌하고 재미있게 소통하시는 유재호 사무관님 파이팅!

윤성준 주무관

우리 과 힘든 일을 도맡아 책임지는 힘찬 막내 윤성준 주무관! 힘이 필요할 땐 헐크! 회식자리에서는 꿀성대를 자랑하는 가왕! 이제는 아름다운 와이프와 신혼생활을 만끽하는 로맨티스트! 마음이 따뜻한 윤성준 주무관의 해피 바이러스가 우리부 모든 이에게 퍼지기를~!

이재우 주무관

국회와 예산업무를 두루 섭렵할 멀티플레이어, 이재우 주무관님! 2015년 국회 현장에서 쉴새 없이 발로 뛰어가며 늦은 시간까지 가족을 잊은 채 열정을 다 바친 사나이, 국회라는 땅 속 깊이 파묻혀 있었던 진주가 이제 정열적인 예산업무 담당자로 떠올랐습니다. 2016년에 아버지가 되는 이재우 주무관님! 파이아!!

이정화 전문관

기획재정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 뿌리깊은 나무! 이정화 전문관님. 2001년부터 기획재정에서 16번째 해를 맞이하시며 중학생을 둔 학부모가 되셨습니다. 항상 처음처럼 변함없이 상냥하고 꼼꼼하게 국회 업무를 다방면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든든한 수호천사! 이정화 전문관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지켜주십니다.

임정준 주무관

국회의원실과 행정실 대응 등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는 미남 임정준 주무관님. 첫 발령 받고 국회에 입성하여 잘생김을 묻히고 다니며 여기저기에서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남자. 여심을 녹일 매력적인 미소까지 완벽하게 장착한 그는 오늘도 경건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국회를 뛰어다닙니다.

정민구 주무관

국회 내근 업무를 총괄하시면서 큰 형님처럼 주변사람들을 감싸주고 이끌어주는 남자 정민구 주무관님, 현재 큰형님 포스 물씬 풍기시는 외모도 매력적이시지만 15년 전에는 날렵한 모델몸매였음을 잠시 카카오톡 프사로 입증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한 열정은 물론 주변사람들을 챙기는 큰형님 정민구 주무관님 따봉!!

조현훈 사무관

따뜻한 카리스마를 장착한 국회협력 팀장 조현훈 사무관님, 국회 대응 과정에서 잘 보이지 않는 다사다난한 일들을 시원시원하게 처리하시고, 새벽아침 국회에서 홍삼을 건네시며 따뜻함을 전파하십니다. 고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위트있는 입담으로 분위기를 업!업!업! 시키시는 능력자 조현훈사무관님 파이팅!!



(왼쪽부터) 임용기, 이주노, 김철영, 정용수, 박덕렬, 최진경, 차민주, 송수진, 조동후, 손병호, 김재홍

창조행정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 정용수 주무관

과 이름에 무려 '창조'라는 파격적인 말이 들어가는 유일한 과! 우리 부 공공기관을 총괄하고 성과평가,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등 다양한 평가도 함께 담당하는 창조행정담당관실을 소개합니다.

박덕렬 과장

UAE라는 기름국에서 다년간 모래폭풍에 맞서 싸우다 귀국해 창조행정담당관실로 오신 우리 과장님. 옆집 아저씨 같은 외모에 대인배 미소를 머금고 허허 웃다가도 날카롭게 정곡을 찌르는 분입니다. 공공기관 담당하랴 조직관리하랴 항상 바쁘시지만, 그래도 직원들에게는 아빠 같은 존재이십니다.

손병호 서기관

구수한 진주 사투리를 구사하시며 공공기관 및 단체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과의 가장 큰 형님 손병호 서기관님. 왠지 계란 동동 쌍화차를 즐겨 드실 것 같지만, 사실 집에서 커피 원두를 직접 갈고 볶아 드시며, 해박한 커피 지식까지 겸비한 청춘 서기관님입니다.

* 이하 가나다 순

김재홍 주무관

자체평가와 위원회를 담당하는 우리 천사 같은 김재홍 주무관님. 동기인 성이영 주무관님과 몰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 작년에는 둘째도 얻었습니다. 딸을 데려다 주기 위해 늘 저녁약속도 거르고, 초과근무도 하지 않는 이 시대 가정적인 남자의 표본입니다.

김철영 사무관

주무 사무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공공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모두 책임지다 드디어 주무 사무관으로 영전하신 분. 작년에 둘째를 득남한 두 아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김철영 사무관님 차에 타면 시속 150km의 속도감을 느끼며, 이게 베르나인지 람보르기니인지 착각에 빠지는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송수진 사무관

조직과 성과평가를 담당하시는 송수진 사무관님. 무려 영국에 유학 갔다 오셔서 유창한 영어 솜씨를 뽐내면서 늘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는 학구파. 격무에 시달리며 매달 우리 과 초과근무 1, 2위를 다툴 정도로 바쁘지만 티내지 않고 묵묵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주노 사무관

솔직히 인사발령 보고 본명인지 예명인지 궁금했었다는! 왠지 노래방에서 '하여가'를 부르며 브레이킹 댄스를 할 이름 같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말수도 적고 조용한 성격의 남자. 고향 대전을 떠나 서울시에서 도시브랜드담당관 팀장을 맡다가 산업부로 오셨어요. 기타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임용기 사무관

정부업무평가를 담당하시며 늘 우리 부를 상위랭킹에 올려놓아 두둑한 상금 때문에 고민인 포상금 사냥꾼 임용기 사무관님. 아직도 경기도에서 매일 출퇴근 하시면서도 피곤한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가정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분입니다.

정용수 주무관

우리 과의 막내이자 변화관리를 담당하는 정용수 주무관. 집에 땅이 몇 마지기라느니 공주 유지라느니 하는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도 늘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신비로운 남자. 작년에만 소개팅을 수도 없이 하면서도 차이는 건지 차는 건지 맨날 실패만 겪다가, 강제적 독신주의자가 될 것 같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조동후 주무관

어디 우리 조동후 주무관님 데려가실 여성 분 없나요ㅜㅜ? 아침 7시에 출근, 쿨하게 산책 한번 하고, 일 끝나면 집으로 바로 직행하는 남자. 늘 사무실과 집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이지만 이제는 장가 가셔야 합니다. 혹시 근처에 참한 누나나 언니 있으면 제보해 주세요.

차민주 사무관

사무관으로 승진하자마자 정부3.0이라는 묵직한 임무를 맡고 우리 과로 부임하신 차민주 사무관님. 조곤조곤한 말투와 엘레강스한 외모로 소싯적 남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지금은 한 가정의 아내와 엄마가 되어 일과 가정 모두 포기 못하는 워킹맘이세요.

최진경 주무관

차민주 사무관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 과 유일한 여성으로 남자만 득실득실한 곳에서 모진 풍파를 다 겪은 최진경 주무관님. 무려 포*코 아파트에 당첨되고 늘 부동산 동향에 오감을 집중하며 가정을 부흥시키려는 야망을 품고 있는 여성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왼쪽부터) 박경숙, 안성훈, 노진만, 김하식, 김호성, 백종승, 용환득, 백승필, 한영미, 김범식, 조소행, 박태규, 이용림, 고은희, 양나래, 이승권

작성자 : 안성훈 법무관

이 시대의 화두, 규제개혁! 그 뿐만 아니라 입법과 법률 및 각종 주요회의 관련 제 업무지원 그리고 민원에 이르기까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과 우리 부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든든한 구성원들을 소개합니다.

김호성 과장

나긋나긋한 목소리와 슬며시 드러나는 눈웃음이 매력적인 과장님. 일에 있어서는 부드럽지만 탁월한 통찰과 단호한 결단력으로 일 처리를 지휘하시는 한편,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섬세하게 챙기는 멋진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 이하 가나다 순

김범식 사무관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 주요 사건을 챙기느라 분주한 김 사무관님. 하지만 정기적으로 축구를 즐기시는 축구인 답게 항상 넘치는 활력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집에 서도 어린 아들이 아직 김사무관님의 파이팅을 이기지 못한다는 소문이!

노진만 사무관

국회부터 규제까지 주요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는 가히 우리 과의 간판 사무관! 뛰어난 업무 실력은 물론이고, 환한 미소와 즐거운 이야깃거리들로 과의 분위기메이커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사무관

국회에서 항상 비상대기 해야 하는 숙명에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는 박사무관님! 우리 과로 옮기자마자 업무에 적응할 여유도 없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앉으신 자리가 전통적으로 미남 사무관이 앉아왔던 자리라는 것 알고 계신지. 전통은 계속됩니다.

백승필 주무관

잦은 국회 출장에도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고생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항상 소탈하고 선한 미소를 전하는 멋진 주무관님! 업무에 있어서도 꼼꼼하고 날카롭게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백종승 주무관

기규옥 사무관님의 공로연수 파견으로 갑작스럽게 본래 업무 외에 다른 업무까지 떠안게 된 백사무관님. 하지만 무리 없이 소화하고 계시는 베테랑 사무관 이십니다. 그 뿐인가요, 가정적인 면모하면 둘째가 라면 서러운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

양나래 주무관

규제신문고, 손톱밑가시에 기특법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 양 주무관님. 똑부러지는 지성, 온화한 성격, 미모도 모자라, 수준급 일본어 실력의 소유자라니! 알면 알수록 매력이 넘칩니다.

윤해 주무관

우리 과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윤해 주무관! 손꼽히는 미모로 뭇남성들을 설레게 한다는 소문도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미모 뿐만 아니라 밝은 에너지로 과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타부처 법령협의, 규제개혁 뿐 아니라 얼마 전부터는 송무까지 맡아 고생하고 있는데, 파이팅입니다.

조소행 주무관

가히 최고의 살림꾼. 옆 자리에 앉아계시던 기규옥 사무관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주무관님을 칭찬하셨다지요. 과 직원들의 평화(?)를 위해 언제나 애쓰 시는 조주무관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안성훈 법무관

법무부에서 파견된 공익법무관으로서 우리부의 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앙 부처 중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는 부처이고, 그래서 공익법무관 중에서도 제일 훌륭한 사람만 올 수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민원팀)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 박경숙 주무관

민원팀은 기획조정실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팀입니다. 산업부로 들어오는 모든 민원을 모아 접수 · 분류하며, 처리된 민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여러 가지 통계를 내어 대정부 민원의 신뢰도를 높이는 업무를 말합니다. 산업부 구석구석 모두 알아야 하고 산업부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업무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는 작지만 역동적인 조직입니다.

용환득 팀장

공직생활의 연륜만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민원의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는 능력자. 다부진 체격에 살아 있는 (?) 눈빛을 가진 스키, 축구, 클라이밍 등 못하는 운동이 없는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 이하 가나다 순

고은희 전문관

민원팀의 막내이자 살림꾼. 민원인에게 해피콜을 하면서 상큼한 해피바이러스를 팍팍. 여리여리한 아가씨 같지만 알고 보면 여섯 살 딸을 둔 엄마라는 사실.

김하식 주무관

세종에서 홀로 지낸 지 어언 2년째지만 성대모사 연습을 하시는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장관님도 되었다가 국장님도 되고, 심지어 영어까지 되는 신통 방통한 목소리를 가지신 민원팀의 터줏대감.

박경숙 주무관

민원팀 근무 1년 만에 민원팀의 중심이자 기둥이 되어 버린 화통한 목소리로 하루에도 열두 번은 민원팀을 들었다 놨다 하는 요물!! 국민신문고 뿐만 아니라 민원팀 내의 민원까지 단박에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

이승권 주무관

인도어과를 나와서 나마스떼~. 인도어 배우고 싶은 분들 손 드세요^^. 민원팀의 듬직한 일꾼이자 깔끔한 일처리로 민원인의 무한한 신뢰를 얻고 있는 부산 사나이입니다.

이용림 전문관

언제 어디서나 유쾌한 긍정의 화신으로 민원팀의 분위기 메이커.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산업부에 대해 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산업부대표전화의 여신입니다. (검색 금지)

이창민 전문관

민원실 창단 멤버이자 민원실의 산 증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핵심을 놓치지 않는 실력자. 보기보다(?) 몸은 약하지만 아들을 낳고 지금은 출산휴가중~.

한영미 주무관

차분하고 고운 자태로 나긋나긋하게 민원인을 녹아 내리게 만드는 산업부 최강동안.. 입맛은 까다롭지만 입맛에 맞는 음식은 싹~해치우는게 동안의 비결 인가요?



(뒷줄 왼쪽부터) 유영신, 이창희, 김미애, 장성은, 고창범
(앞줄 왼쪽부터) 정연수, 천영중, 박혜영, 유상열

정보관리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 정연수 주무관

정보관리담당관실은 부내 직원이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시스템과 정보화기기 등 정보화 업무를 맡고 있어 마치 산소와 같은 존재입니다.

김미애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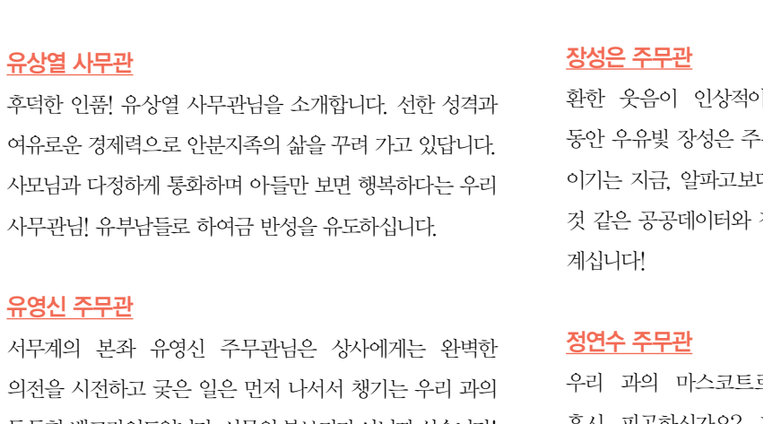
미소가 아름다운 우리 과장님!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며 차를 직접 내려주시는 따뜻한 과장님입니다. 일할 때에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깔끔한 문장력으로 멋지게 업무처리를 하셔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과장님!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는 훈훈하답니다.

고창범 사무관

* 이하 가나다 순우리 과의 듬직한 일꾼! 고창범 사무관님은 부내 정보시스템과 IT기기 등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어 시원시원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방면에 관심이 많아 우리 과에서는 브레인으로 통하 는데요~ 요즘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곧 근육질 몸매를 뽐내실 거 같습니다.

박혜영 주무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업무포털과 메신저는 박혜영 주무관님의 작품이라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예술적 감각이 있어 합창단도 하고 있답니다. 부서 내에서는 상사를 보필하고 주무관들을 이끌어주며, 집에서는 세 명의 아이를 키우는 이 시대의 훌륭한 워킹맘 입니다.



(왼쪽부터) 김광수, 서준혁, 박민경, 전병근, 한대건, 김용완, 박상욱

정보보호담당관을 소개합니다

작성자 : 박민경 주무관

정보보호담당관실은 작년 11월 신설된 따끈따끈한 과로 사이버보안 및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지금 핫 이슈인 보안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과의 멋진 분들을 소개합니다.

유상열 사무관

후덕한 인품! 유상열 사무관님을 소개합니다. 선한 성격과 여유로운 경제력으로 안분지족의 삶을 꾸려 가고 있답니다. 사모님과 다정하게 통화하며 아들만 보면 행복하다는 우리 사무관님! 유부남들로 하여금 반성을 유도하십니다.

유영신 주무관

서무계의 본좌 유영신 주무관님은 상사에게는 완벽한 의전을 시전하고 궂은 일은 먼저 나서서 챙기는 우리 과의 든든한 백그라인드입니다. 서무의 본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 정보관리 담당관실 유영신 주무관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주무관

우리 부 영상회의를 사수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주무관님입니다! 각종 민원으로 바쁘지만 얼굴에는 항상 미소를 띠며 일 처리를 해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장성은 주무관

환한 웃음이 인상적이고 조용하신 외유내강형의 최강동안 우유빛 장성은 주무관님.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을 이기는 지금, 알파고보다 데이터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 공공데이터와 정보기술아키텍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정연수 주무관

우리 과의 마스코트로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과로 놀러오세요. 정주무관님의 샤방샤방한 웃음이면 모든 피로가 싹! 기획실의 마스코트로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보수, 보안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영중 사무관

인자한 인상과 자상한 말투의 소유자이지만 일할 때는 세심하고 꼼꼼한 외유내강, 천영중 사무관님. 이런 모습을 보면 마치 멘토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행계획 및 주요 평가 등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전병근 과장님

사우디아라비아에 3년 넘게 파견 나가셨다 정보보호 담당관으로 복귀!! 웨이브 머리와 멋진 목소리의 첫인상은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더운 나라에서 지내다 올겨울 추운 날씨와 씨름하신 과장님~ 앞으로 우리과 잘 부탁드립니다.

* 이하 가나다 순

김광수 주무관

시간선택제 근무로 일주일에 3일밖에 뵐 수 없어 늘 아쉬운데요. 3일을 5일처럼 빡세게 근무하시는 주무관님. 다양한 분야에 지식이 아주아주 많으셔서 주위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저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마법사가 되어 주세요.

김용완 사무관

정통부 시절부터 정보보안 업무만 수십 년. 우리부 정보관리, 정보보호 근무만 4년을 넘게 하셔 보안 얘기만 나오면 모르는 게 없는 척척박사 사무관님. 항상 웃으며 힘든 일도 잘 헤쳐 나가는 사무관님이 계셔서 우리 과는 든든합니다.

김학신 주무관

주무관님도 시간선택제 근무로 3일밖에 뵐 수 없지만 늘 조용하셔서 매일 자리에 계신거 같아요ㅎㅎ. 그만큼 존재감이 크시다는~ㅋ. 사슴같이 예쁜 눈을 깜빡이며 늘 본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박민경 주무관

홈페이지 업무를 담당하다 정보보호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새롭게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아직은 낯설고 신기하지만 제가 필요한 곳이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박상욱 주무관

우리 과의 모든 궂은일 솔선수범 하시는 울트라 짱, 주무관님! 180cm이 넘는 헌칠한 키에 언뜻 보면 쿵푸팬더를 닮은 듯. 그래서 주무관님이 자리를 비우면 더더더 ~ 티가 나나봐요. 저의 영원한 멘토, 박주무관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서준혁 주무관

공공기관에 근무하다가 늦은 나이에 과감히 공무원의 길을 선택한 새내기 주무관님. 지금 공무원 생활의 최고 황금기인 6주교육 중이신데요.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 우시겠죠, 부럽습니다. 곧 딸바보가 되실텐데 많이 떨리시죠? 미리 축하드립니다.

한대건 사무관

작년 6월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다 과감히 우리 부로 전입, 식구들과 세종으로 터전을 옮기신 용기 짱 사무관님! 아직은 사무실보다 집이 더 좋다는 딸바보. 정말 흠뻑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는데. 산업통상 자원부에서도 파이팅 하세요. ㈜MOTIE

아내(남편)에게 쓰는 글



기획조정실 **윤성준** 주무관



2016년 추운 겨울 어느 날

사랑하는 내 마음을 부족한 지식으로 인해 말로 다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식사를 같이 하는 날이 거의 없었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지 못하면서 보고싶어요, 사랑해요, 고맙다는 말만으로 위로하는 나였지만 가슴 속 깊이 당신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해요.
앞으로 색이 바래고 행여 세월이 흘러 잊혀지고, 몸과 마음의 몇 장이 떨어져 나간다 해도 먼 훗날 내 가슴 속에서 꺼내어 펼치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사랑은 10을 잘해주고 5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1을 잘해주고 9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는데, 10을 잘해주려는 것에만 집중하여 편하게 해주는 것을 소홀히 하였던 나를 반성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당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이란,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이해해주고 상처 주지 않는 남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네요. 결혼한 지 이제 갓 2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결혼생활에 대해 너무나도 아는 것이 없었던 나를 사랑해주고 맞춰가는 당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기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 주면서 계속 옆에서 위로해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 험난하고 포기하고 싶어질 때, 따뜻한 손 내밀어 잡아주며 서로 바라보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 흘릴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 그러한 동반자로서 우리의 일기를 쓰고 있는 2016년 추운 겨울 어느 날, 당신을 생각하는 신랑이…. **MOTIE**





아내(남편)
에게
쓰는 글



지역산업과 **김지연** 사무관

사랑하는 **남편에게**



남편~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 슬그머니 웃게 되는 한 달차 새댁인데, 글을 부탁받고 나니 새로 생긴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 결혼준비부터 신행, 그리고 집안 대소사가 많았던 최근까지 설레면서도 낯선 하루하루를 떠올려보면 새삼 오빠가 내 남편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연애 시절에는 없던 긴장 같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새롭게 생겼달까. 갑자기 두 배가 된 친척들, 새로운 질서와 어색한 명칭들(새아기같은...ㅎ). 그래도 지금껏 단 한 번의 다툼없이 잘 해내왔던 건 우리가 서로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겠지? 요즘 결혼하니 좋으냐는 질문을 많이 들어. 비록 긴장이 되는 순간이 조금 생겼지만,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을 더 많이 공유하게 되어서 좋은 거 같아. 지친 하루의 끝에 기댈 수 있는 내 편이 생겼고, 내가 잘 내색하지 못하는 조그만 서운함과 상처입는 순간도 바로 알아채고 다독여주는 남편이 곁에 있어 참 좋아.

우리 결혼 전 서로에게 한 다짐처럼, 이해하고 봐주면서 예쁘게 살자



오빠가 같은 질문을 듣는다면, 물론 좋겠지만ㅎㅎ. 제대로 밥도 차려본 적 없고, 때론 서울 신혼집에 못 가거나 늦게 들어가는 나로 인해 생활수준은 하락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네. 그래도 우리 결혼 전 서로에게 한 다짐처럼, 이해하고 봐주면서 예쁘게 살아봐요. 각자 스스로의 희생정신과 공동체 의식에 놀라는 나날이지만 사실 우리 둘이라 그럴 수 있는 거잖아? ^^ '안 해봐서 그렇지, 하면 잘해'라고 했던 내 지난 뻥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어서 미안하긴 해도 진지하게 칭찬을 남발해주는 오빠 덕분에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해. 신혼은 6개월까지다, 지금이 좋을 때다, 라는 주위의 말들처럼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겁도 나지만, 설레고 좋기만 한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게 부부일테니 익숙해지고 때론 지겨워져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서로 힘이 되어주자. 남편~ 많이 배려해주고 웃게 해줘서 고마워^^. 오빠가 직접 (이상하게) 그린 내 얼굴과 함께 띄운 프로포즈 영상의 멘트처럼, 함께 기뻐하고, 애틋하게 아껴주며 변치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자. 늘 곁에서 위로가 되는 지혜롭고 따뜻한 아내가 될게, 사랑해♥ MOTIE

아내(남편)에게 쓰는 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대책단 **정지선** 사무관

곁에 있어도 그리운 내 사람♡

여보.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불러보는 것 같아. 어젯밤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조금은 섭섭한 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 어색하네. 결혼한 이후로 나의 가장 큰 고민이자, 섭섭한 부분은 당신이 나보다 훨씬 바빠서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적다는 거였어. 일이 너무 바빠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당신이 나보다 더 힘들 텐데, 내가 어제 또 투정을 부려버렸다. 너무 오랫동안 같이 보낸 시간이 많아서일까? 같이 없는 시간이 잘 적응이 안 되나봐. 2009년 봄, 내가 도서관 앞에서 처음 만났던 당신은 멀대같이 키가 크고, 운동 삼아 댄스스포츠를 배우러 간다는 특이한 동갑내기였어. 2009년 여름에 두 번째로 학교 식당에서 만났을 땐, 왠지 인상이 좋아 보여 나의 제일 친한 친구와 소개팅을





하려냐고 물어봤었고. 2009년 가을부터는 도서관에서 종종 눈에 띄었고, 겨울부터는 같이 밥터디를 하기 시작했지. 매일 아침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8시 셔틀을 타러 달려 나와 눈곱 떼는 모습도 보고, 자하연에서 같이 아침을 먹고, 맞은편에 앉아 공부하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 후엔 밥터디 친구들이랑 누가 후식을 쏠지 가위바위보를 하던 그 시절이 벌써 옛날 같다. 11시까지 공부하는 당신과 같이 집에 가려고 애써 졸음을 참으면서 버티기도 해보고, 같이 먹으려고 과일도 깎아 오고, 괜히 공부하는 사람을 나오라고 불러내기도 하고. 나도 참 그 때부터 많이 좋아했나봐. 덕분에 그 해에 난 고시에 떨어졌지만, 당신을 얻었고, 그 다음 해에 내가 붙을 때까지 당신이 기다려줬지. 우리가 만났던 5년이 넘는 시간동안 내가 아팠을 때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세종시로 혼자 내려와서 힘들었을 때 언제나 곁에 있어주어서 든든하고 고마웠어. 입사한 이후로 늘 바쁜 당신에게 내가 요즘 부쩍 툴툴거리긴 하지만, 바쁜 와중에도 날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마음속으로 항상 고마워하고 있어. 지금처럼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쉴 수 있고, 한 번쯤은 편하게 저녁 먹을 수 있는 날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고마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어서. 나도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우리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서로 얘기하면서 잘 살자♡ ㉾MOTIE

아내(남편)에게 쓰는 글



前 2차관실 비서관, 美 University of Delaware
정동원 사무관(유학 휴직 중)



견우와 직녀 이야기



지니야, 잘 지내고 있지? 우리 결혼하고 채 한 달도 안되어 나만 미국으로 떠나 견우와 직녀마냥 하늘을 날아가야 만날 수 있게 된 지도 2개월이 넘었네. 처음에는 정착 준비와 어학원, 대학원 겨울학기를 병행하느라 정신없어 연락도 자주 못했었잖아. 우편함 열쇠 받느라 2주 넘게 우체국 들락날락 하고, 환경이 바뀐 탓인지 몸이 자주 아프기도 하고, 내가 사고(?) 쳐서 워싱턴에 급히 다녀오기도 했지. 그래도 그 와중에 겨울학기와 봄학기 사이 일주일 틈새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 유학준비와 지니 시험준비 때문에 못간 신혼여행 가서 다시 만날 생각에 힘든지도 모르고 준비했었지.

한국에서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하와이 신혼여행은 너무나 즐거운 추억이었어. 첫날 내가 먼저 와서 비행기 도착 게이트 앞에서 놀라게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다 도착하는 시간에 잠깐 졸아 서로 어긋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오아후 섬 드라이브하면서 같이 본 하나우마 베이의 멋진 풍경은 잊지 못할 것 같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갑자기 나타난 해파리들 덕에



지니가 미국 오면 해주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요리~

최고의 스노클링 포인트라는 하나우마 베이는 못갔지만 와이키키 해변에서의 스노클링도 재미있었어. 우리 하와이 다시 오자는 약속 꼭 지키자~. 신혼여행 마지막 날 다시 나는 미국으로, 지니는 한국으로 가야 했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한 달만 있으면 미국으로 오는 걸 알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구 ㅠ.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지니가 오네. 혼자 한국에 있으면서 친가 부모님 생신과 조카 졸업식 챙기고, 서울에 있는 누나 병문안에 설 명절 친척분들 인사까지 다녀줘서 너무 고맙고, 또 미안해. 다음에는 꼭 같이 다니자~. 오늘도 지니가 미국 오면 해주려고 열심히 요리 연습하고 있어. 오늘 점심은 볶음밥에 김치찌개, 저녁은 고추장 양념 생선구이와 샐러드 먹었어 ㅎㅎ. 사진 보니 같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 그 동안 한국요리의 기본인 김치찌개, 된장찌개부터 각종 조림음식들까지 해보고, 파스타랑 스테이크, 샌드위치도 만들어 봤는데 내가 어머니 손맛을 좀 받았는지 맛있는 것 같아. 빨리 미국 와서 같이 먹자, 사랑해♡. MOTIE



와이키키 해변에서의 스노클링!!!



소통 장벽 넘는 SNS 메신저

손 안의 또다른 뇌, 스마트 폰은
'SNS'를 통해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넘어
직장에서 메신저를 사용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편리한 소통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뜨리기도 하는 'SNS메신저'.
산업부 직원들에게 'SNS메신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42 이상한 나라의 Poll I 산업부 가족들에게 SNS란?
46 네모 톡.톡.톡 I 직장에서의 진정한 소통이란 ☐ 이다.

special theme **소통 장벽 넘는 SNS 메신저**
48 이 시대의 새로운 소통방식
50 에티켓만 지킨다면 유쾌한 소통해결사
52 어느덧 내 인생의 절친, SNS
54 추억 속 친구를 불러모으다
56 소통의 창구? 직장인의 족쇄?
58 엄지가 쉬면 마음이 불안한 이유
60 SNS로 통하는 이 시대의 사랑법

SPECIAL
THEME



이상한 나라의 Poll

편집실



산업부 가족들에게 SNS란?

산업통상자원가족 설문조사

몸 밖의 또 하나의 뇌, 스마트 폰은 SNS 메신저를 통해 우리 사이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넘어 직장에서도 일정을 공유하는 등 업무에 SNS 메신저를 사용하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편리함의 이면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대략 난감한 상황에 빠뜨리게도 하는 SNS 메신저. 산업부 직원들에게 SNS 메신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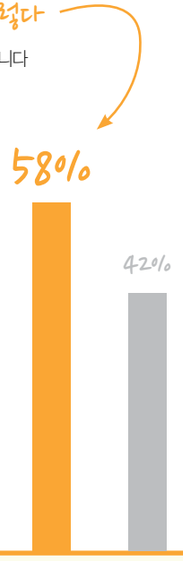
기간 : 2016. 3. 23 ~ 2016. 4. 12

설문 대상 : 산업통상자원부 전 직원

참여 인원 : 7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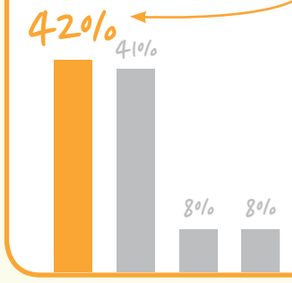
1 SNS 메신저를 업무에 자주 이용하시나요?

1. 그렇다
2.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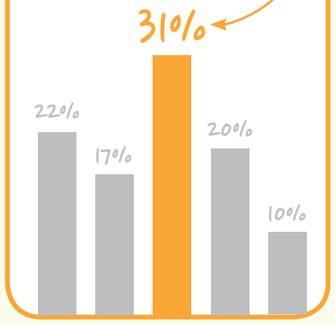
2 (질문1. ①그렇다) 어떤 방식으로 업무에 SNS 메신저를 이용하시나요?

1. 출장 중인 상사에게 상시 업무 보고 및 검토 요청
2.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일정 및 업무 공유
3. 동료들과 업무관련 이야기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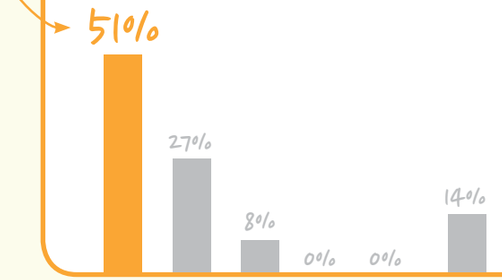
3 (질문1. ①그렇다) SNS 메신저를 업무에 이용하는 횟수는?

1. 하루에 10회 이상
2. 하루에 5회 정도
3. 하루에 2~3회 정도
4. 하루에 1회 정도
5. 일주일에 1회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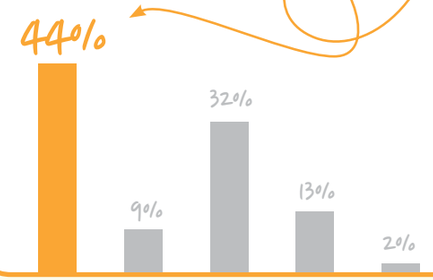
4 (질문1. ①그렇다) SNS 메신저를 업무에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지 않아서
2. 정보와 자료 유출 우려
3. 프로필 등 사생활 노출
4. 그룹방에서 소외되면 업무에서도 배척당하는 기분이라
5. 그룹의 스피디한 의사결정이 심사숙고를 해치는 것 같다
6.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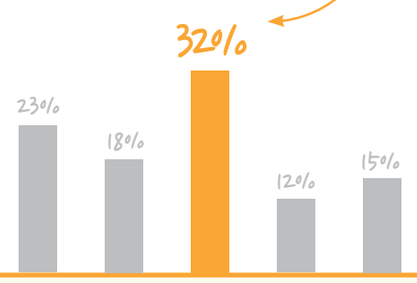
5 SNS 메신저를 업무에 활용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1. 업무 지시사항 전달 등 메신저로 빠르게
2. 전하기 애매한 사항도 메신저로 명쾌하게
3. 장거리 출장 시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의사소통 도구
4. 한꺼번에 멀티태스킹 가능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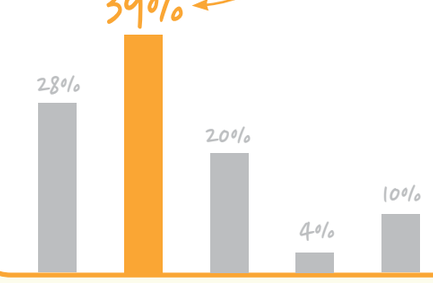
6 사무실에서 꼭 없어졌으면 하는 메신저 민폐사례는?

1. 회의 중 갑자기 울리는 민망한 카카오톡 소리
2. 업무 관련 대화 이외의 잡담
3. 1초 가격으로 오는 답장 재촉
4. 대화 상대 잘못 선택, 맞춤법 틀리는 경우
5. 기타(근무시간외 급하지 않은 업무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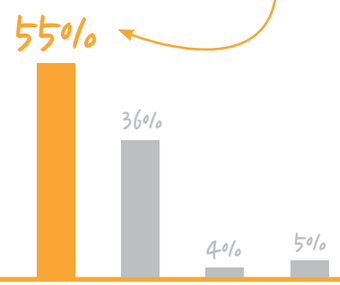
7 SNS 메신저 덕을 톡톡히 본 적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1. 국감 등 중요회의시 스피디한 정보 전달로 위기 모면
2. 바쁜신 간부들과 유연하게 실시간 의사소통
3. 껄끄러운 동료와 얼굴 붉히지 않고 업무공유
4. SNS 메신저 핑계를 대고 불편한 자리를 빠져나온적 있다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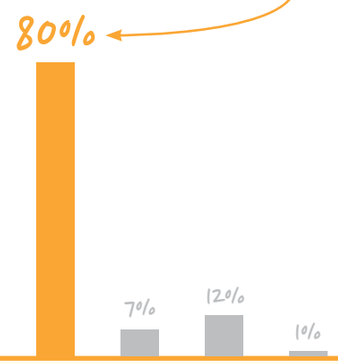
8 사무실에서의 SNS 메신저 사용,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1. SNS 메신저의 자유로운 사용 허용
2. 업무용으로 하는 SNS 메신저만 허용
3. SNS 메신저 사용 일체 금지
4. 기타(상황에 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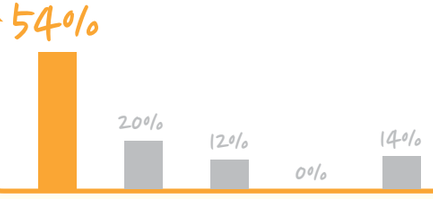
9 현재 자주 사용하시는 SNS 메신저는 무엇인가요?

1. 카카오톡
2. 바로톡
3. 일반 문자메시지
4.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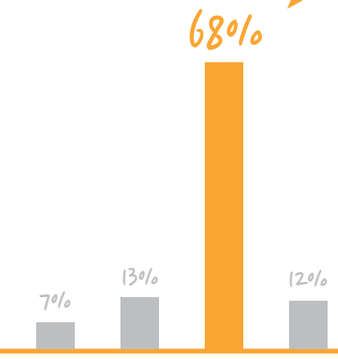
10 다양한 SNS 메신저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요?

1. 혼선을 없애기 위해 거의 한가지 SNS메신저만 사용
2. 시급한 업무는 카카오톡과 바로톡으로 (문자와 메일은 그 외 사용)
3. 윗분들과는 바로톡으로, 편한 동료는 카카오톡으로
4. 다른 정부부처 관계자는 바로톡, 우리부에서는 다른 SNS 메신저 사용
5. 기타(사용안함, 일반 문자메시지, 바로톡, 문자만, 카카오톡을 쓰지만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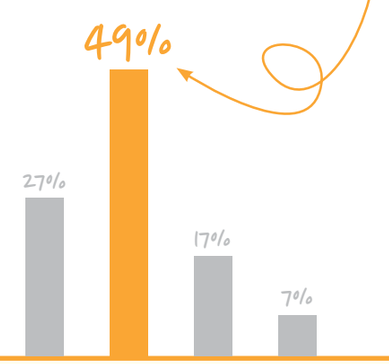
11 바로톡 어플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1. 자주 사용하는 SNS 메신저이다
2. 때에 따라 사용하는 편이다
3. 알고는 있지만 거의 사용 안한다
4. 바로톡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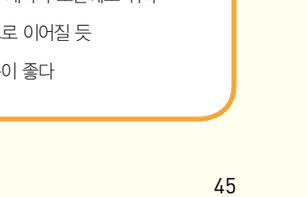
12 많은 공무원들이 바로톡을 사용하도록 하려면?

1. iOS체계(아이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2. 업무처리에 적용할 만한 기술을 더 개발해 사용상의 편의 늘려야
3. 아직 홍보가 미흡하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알려야
4. 기타



13 근무 시간에 SNS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저지른 깜짝 실수가 있다면?

- 상사 일정에 대해 비서와 이야기하다 상사한테 보낸 적이 여러 번 있다
- 붙여넣기 하면서 내용 수정 못한 것~
-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름
- 비슷한 사람들과 여러개의 메신저 사용중 엉뚱한 다른쪽하고 대화를 나눔~~~
- 동영상 파일이 와서 무심결에 눌렀다가 어마무시한 큰 소리 때문에 급하게 전원을 끈 적이 있다?!
- 잘못해서 회의 시간에 카카오톡 소리가 울려 퍼진 적이 있다
- 친구끼리 약속내용을 상사분께 보냄
- 동명이인에게 문자 전송
- 와이프에게 업무지시 ㅠ



14 SNS 메신저 덕분에 달라진 내 인생의 훈훈한 사연이 있다면?

- 자녀들과 소통
- 업무 전달이 엄청 빨라짐. 일일이 전화 안해도 되구~
- 다양한 이모티콘을 통해 대면으로 말하기 힘든 상황을 좀더 유연하게 풀어갈 수 있음
- 상사가 지적할 부분을 동료 직원이 미리 알려줘서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 상사와 바로 바로 소통이 가능하다
- 주위의 어려운 일을 당한 분께 마음을 전달, 위로 및 축하 사연 전달
- 결혼
- 아내의 실시간 응원
- 여러 사람을 알게되어 인맥관리가 더 좋아진 점? ㅎㅎ
- 프로필 사진 덕에 딸바보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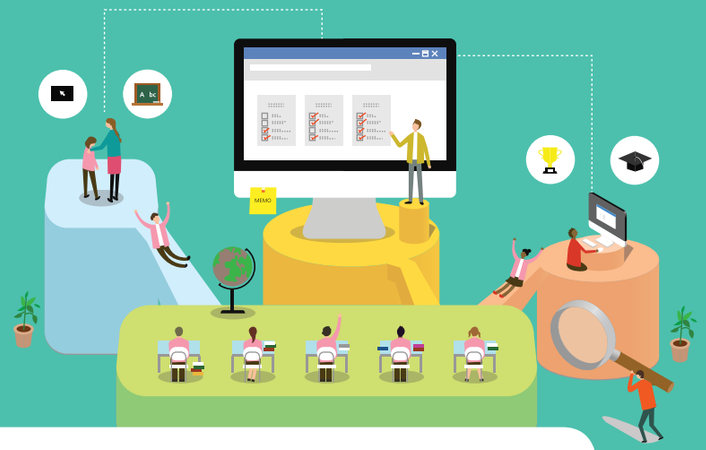
15 소통의 도구로서, SNS 메신저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한 줄로 말씀해 주세요)

- 긍정적. 서울-세종 출장으로 자리에 안계신 상사에게 보고, 저녁 시간에 떨어지는 업무에 대한 보고 등.
- 긍정적.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대화 가능
- 부정적. 시도때도 없이 울리는 소리 때문에
- 부정적. 현실에서는 소통보다는 가상의 소통으로 대리만족을 얻고, 또한 리액션을 강요당하는 문화
- 긍정적. 마음을 전하는 소통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
- 긍정적.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메신저로서는 차분하게 자기 생각을 적을 수 있어서
- 긍정적. 과도한 SNS는 문제지만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면
- 부정적. 신속한 의사전달을 위해 단문위주 소통을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 게다가 보안에도 취약
- 부정적. 자칫 자료유출 대란으로 이어질 듯
- 긍정적. 여러 사람들과의 소통이 좋다

네모
톡.톡.톡

편집실



직장에서의 진정한 소통이란 [ ] 이다

- 다다익선
- 선입견을 버리는 것
- 비타민
- 이유에 대한 친절한 설명
- 바로톡
- 얼굴을 마주보고 맛있는 밥먹는 일
-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 아름다운 미소
- 마주봄
- 신속효율
- 비우기
- 오픈마인드
- 신기루
- 이해심
- 창조력
- 배려심
- 내가 너가 되는 것
- 사랑
- 대화톡
- 티타임
- 뜻통함
- 맘대맘 전달
- 필수적
- 플플플, 소통을 통해서 직장생활이 원더풀!, 몸과 마음이 뷰티풀!, 업무역량이 파워풀! 해집니다

설문 참여 당첨자 명단

김경순	통상국내대책관	임춘호	투자유치과
김현준	IT지원센터(행정정보)	정민규	기업협력과
나윤정	통상법무과	정상천	중동아프리카통상과
박이용	에너지자원정책과	정종호	관리과
손빈	등록팀	주상현	창의산업정책과
유재욱	입지총괄과	진상언	기술규제조정과
윤성준	기획재정담당관	진인휘	홍보담당관
이동섭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차민주	창조행정담당관
이봉교	운영지원과	최훈동	관리과
임용혁	홍보담당관	황인택	산업정책과

네모톡톡톡 당첨자 명단

강호정	통상정책총괄과	이선아	에너지자원실
김동숙	등록팀	이희주	홍보담당관
김동효	입지총괄과	임성균	전자부품과
김시덕	투자정책과	임승호	관리과
김정훈	기업협력과	정성진	아주통상과
박일준	기획조정실	정소영	기업협력과
박종숙	전자부품과	조영태	무역조사실
오용환	운영지원과	주상현	창의산업정책과
윤영범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최진경	창조행정담당관
이광은	적합성평가과	한희진	장관실

※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중 당첨된 총 40명에게는 온누리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공무원 모바일 메신저

바로톡



서비스 소개

바로톡은 **대한민국**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 **입니다.**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스마트폰 인터넷 주소창에 http://m.barotalk.kr을 입력하여 바로톡 앱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GPKI 인증서 이동

행정전자서명(GPKI)를 인터넷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바로톡	1:1 대화, 1:N 대화, 직원목록, 직원검색, 대화방생성, 파일 송수신	회원초대	미가입 회원초대
소모임	소모임 만들기, 글쓰기, 댓글, 파일첨부, 사진첩	환경설정	나의 프로필, 잠금암호 설정, 알림설정

special theme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김나영** 주무관



이 시대의 새로운 소통방식

소셜네트워크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 : SNS)은 모바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욱 인기를 얻게 되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SNS를 통한 소통은 친근감 형성, 관계유지에 도움을 주고,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좋은 곳에 갈 때에도 공유하는 친구처럼 자리잡았기 때문에 SNS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SNS는 또다른 관계유지 도구

"'좋아요'만 누르지 말고 '좋아해줘'"라는 홍보 타이틀을 내세운 영화 "좋아해줘"가 인기리에 상영되었다. 연애도 SNS로 시작하는 현세대의 모습을 잘 담았다는 평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요즘 SNS가 소통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실적인 묘사를 한 것 같아 나도 재밌게 본 영화이다.

소셜네트워크시스템(Social Network System : SNS)은 모바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욱 인기를 얻게 되었다. 언제든 어디서든 나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고, 또한 지인들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요즘 세대'를 살고 있는 나도 SNS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이다. 친구들과 일일이 안부를 주고 받지 않아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SNS를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목적으로 애용 하고 있다.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친밀감은 줄어 들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SNS를 통한 소통도 나름대로의 친근감 형성, 관계유지에 도움을 주는 듯하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거주할 때에 SNS의 장점과 소중함(?)까지 느낀 경험이 있다. 가족과 처음 떨어져 지내는 딸의 타지생활을 궁금해 하시던 부모님이 페이스북(facebook) 계정을 만들고 SNS활동을 시작 하신 것이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내 일기를 보는 것 같아서 불편하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멀리 떨어져서 소통하는 데에 있어서는 SNS를 이용하는 것이 재밌고 편하다는 장점을 많이 느꼈다.

생활하며 찍은 사진이나 때마다 쓴 짧은 글 등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끔은 직접 사진도 올리면서 재미를 붙이셨고, 마치 한국에서 일상을 같이 하는 것처럼 원활히 소통했다.

타지생활에도 늘 가족과 함께인 것처럼



▲ 태풍 샌디(sandy)로 쓰러진 집 앞의 나무, 작은 화재로 집안의 모든 전력과 주파수가 끊긴 상황이었다.

교환학생 당시 여름에는 큰 태풍 샌디(sandy)가 미국 동북부를 강타했다. 홈스테이하던 집 앞의 큰 나무가 쓰러졌고 전기와 인터넷이 모두 끊기게 되고, 전화 주파수도 잡히지 않는 상황이었다. 집에서 벗어나 캠퍼스로 들어와 컴퓨터로 SNS에 태풍 때문에 닥친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렸고, 페이스북(facebook) 채팅을 통해서 친구들, 가족들과 연락을 할 수 있었다. SNS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할 소통이었을 것이다. 현재는 울산에서 또다시 타지생활을 하며 그간 접었던 SNS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서울에만 사는 친구들은 울산에서의 생활이 신기하다며 안부를 물어오고, 가족들은 타지에서도 잘 지내는 모습에 걱정을 더신 듯하다. 이제는 SNS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도, 좋은 곳에 갈 때에도 공유하는 친구처럼 자리잡았기 때문에 SNS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SNS를 통해 소통에 많이 도움을 받은 나로서는 지금까지 발전해온 것과 같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생활과 함께하며 발전할지 많은 기대가 된다. MOTIE

special theme



원전산업관리과 **황상윤**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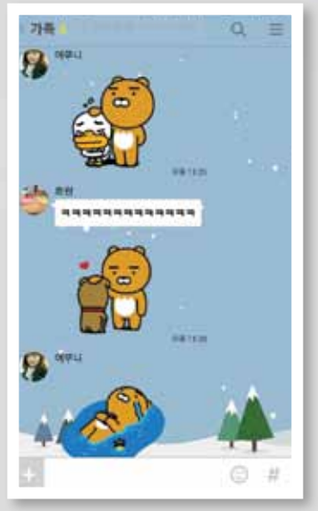
사진도 공유하고 기사도 함께 보고

우리는 주위의 가족 또는 친지들과 결속감과 유대감을 가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고도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시간적·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족·친지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일정부분 해결해줄 수 있는 수단이 있다. 바로 스마트폰 메신저다. 현재 나의 스마트폰 메신저에는 여러 가지 단체 채팅방이 있다. 친구, 가족, 산업부의 동기들 등등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체채팅방에서 가끔씩 안부를 전하거나 소소한 얘기들을 하면서 비록 공간적으로는 서로 떨어져있지만 함께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준다.

바쁠 때는 남겨진 메시지를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 시간적인 제약도 어느 정도는 극복하는 셈이다(물론 상대방은 나의 아이디 옆에 지워지지 않고 있는 '1'이란 숫자를 보고 있을 테지만 말이다). 가족 친지들과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장면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서로의 관심사나 신문 기사를 링크하여 같이 보기도 하니, 어떨 때는 가까이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서로 더 밀접한 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물론 메신저가 직접적으로 상대방을 대면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모두가 바쁜 현대 사회에서 메신저가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니 기특한 녀석이기는 하다.

이모티콘 하나면 세대차이도 싹~

내가 요즘 메신저를 통해 가장 즐기고 있는 것은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문자나 기호를 통한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있었지만, 요즘 메신저에서 제공하는 것들은 차원이 다르다. 여러 가지 귀엽고 깜찍한 캐릭터들을 통해 다양한 감정들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 부모님께 애교 섞인 말 한 마디 하는 것도 어색하기만 한 이 경상도의 아들이, 부모님께 엉덩이를 씰룩거리는 우스꽝스러운 애교를 부담 없이 부릴 수도 있다. 이러한 이모티콘이 전하는 감정은 세대를 초월한다. 종종 동생과 내가 농담을 하며 웃을 때 '응? 그게 무슨 말이야?'하면서 어리둥절해 하는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이모티콘 하나로 간단하게 웃음 짓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부모님도 재미가 들리셔서 우리에게 이모티콘 사용법을 배워서 자주 쓰시곤 하는데, 그 이모티콘을 사용하면서 웃으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웃음을 짓는다. 같은 이모티콘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주니, 그것 또한 이모티콘의 매력인 것 같다.

잘못 사용하면 메신저가 소통 장벽 될 수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메신저는 소통 장벽을 제거하는 데 요긴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메신저 사용이 오히려 소통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들도 더러 있다. 메신저 내에서의 소통에 집중한 나머지 주위 사람들과의 대화에 소홀히 하다보면, 대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되고 상대방을 언짢게 하기도 한다. 실생활에서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면서 메신저를 사용한다면 유쾌한 메신저 생활이 되지 않을까. ㊎MOTIE

special theme



무역안보과 **홍다운** 주무관

어느덧 내 인생의 절친, SNS

기특한 소통의 해결사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언제 어디서든 손에서 놓지 않는 그것, 손에 없으면 불안하다는 그대의 이름은 바로 핸.드.폰. 핸드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메신저나 카카오톡을 이용해 누군가와 소통을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는 폴라, 플레인, 브런치, 핀터레스트 등 다양한 종류의 SNS들이 선보이고 있지만 구관이 명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역시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를 나누거나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 사용하는 메신저

사실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면 가장 먼저, 카카오톡 단체 방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확인하게 되고 잠자는 순간까지도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카카오톡이죠. 친구들과의 단톡방, 어린이집 친구 엄마와의 단톡방 그리고 시부모님과의 단톡방 등 수많은 단톡방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시부모님과의 단톡방에서는 주로 손주 보고 싶어 하시는 시부모님을 위해 핸드폰으로 찍은 아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드리게 돼요.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과의 단톡방에서는 문화센터 강좌 수강이나 주말 나들이 장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는 서로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정보가 요기에!

카카오톡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업무 시 사용하기에도 참 편하고 좋아요.

요즘처럼 예산이나 결산과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때 업무를 같이 하는 유관 기관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고 메일 내용 확인해달라고 카카오톡 한번 보내주면 안심 또 안심이 되죠. 인터넷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 에서든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카카오톡! 가장 빛을 발하는 시점은 바로 외국에 있을 때!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으로 무료통화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해외에서는 문자 이용 시 요금이 부과되는 것에 반해서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와이파이로 인터넷에 접속하기만 하면 무료로 사진 전송도 쉽게 되니까요.

핸드폰을 자주 이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랍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하게 되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네이버 블로그예요. 예를 들어 식사모임 장소를 못 정해 우왕좌왕하게 될 때, 맛집 검색을 해서 식당 메뉴나 분위기 등을 파악하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예약을 하게 돼요.

요리를 해야 할 때에도 레시피가 궁금하면, 네이버 블로그의 요리 포스팅을 찾아들어가게 되는데 상세한 글에 설명까지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 몰라요. 워낙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 보니 유명 요리 블로거 들을 이웃으로 설정해놓고 그분들이 올리는 요리 포스팅을 보면서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배우게 돼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블로그 이웃' 육아맘들의 블로그를 보면서도 다양한 육아 정보를 얻고 때로는 귀하디 귀한 '꿀팁'을 얻기도 해요.

네이버 블로그가 여러 장의 사진과 글을 담고 있는 것에 반해, 간단한 사진과 글만으로도 이용 가능해 매력적인 다양한 종류의 SNS 서비스도 가끔 이용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주춤하지만 아직도 해외에서는 인기가 있는 트위터에서는 공연 관련 정보를 얻고, 전 연령층이 두루두루 이용하는 페이스북에서는 친구나 지인들의 소식들을 듣고 있어요.

요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좋아하는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카카오톡과 연계된 카카오스토리는 지인들의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함께 공유하기에 정말 좋아요.



시어른들께 ▶ 아기사진을 보여드리는 단체톡

몰랐던 그들과도 어느새 친구 사이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관한 내용만 모아볼 수 있는 '해시 태그(#)'는 관심 분야의 내용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매력이 있는 데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도 쉽게 소통 할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해시 태그(#)'방식을 도입한 것만 봐도 '해시 태그(#)'의 강력한 영향력을 쉽게 알 수 있죠.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온라인 세상에서 이미 친한 사이가 되어버린 이웃들 덕분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SNS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SNS를 통해 알게 된 분들 중 같은 지역에 사는 분들과는 만남을 갖기도 하는데요. 친정엄마는 SNS를 통해 몰랐던 이들을 만나는 걸 보면 신기한 세상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양한 종류의 SNS와 메신저를 통해 지인과의 소통도 활발하게 하고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들다 보면 오히려 실생활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에 그 적당한 선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똑똑하게 잘 사용하면 도움 되는 정보들이 정말 많은 SNS.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종류는 달라지겠지만 SNS가 변함 없이 제 삶의 친구가 되어 주리라는 예감이 드네요. ㉮MOTIE

special theme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장선화** 주무관

추억 속 친구를 불러모으다

낯선 서울, 고향친구를 그리던 초등시절

SNS도 메신저도 언제나 일상적으로 사용해 오기는 했지만 한 번도 그것을 통해 어떤 소통을 해 왔는지, 또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였는지 등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생각하고 생각하여 작고 사소하지만 제게 나름의 의미 있었던 소통과 교류, 그리고 SNS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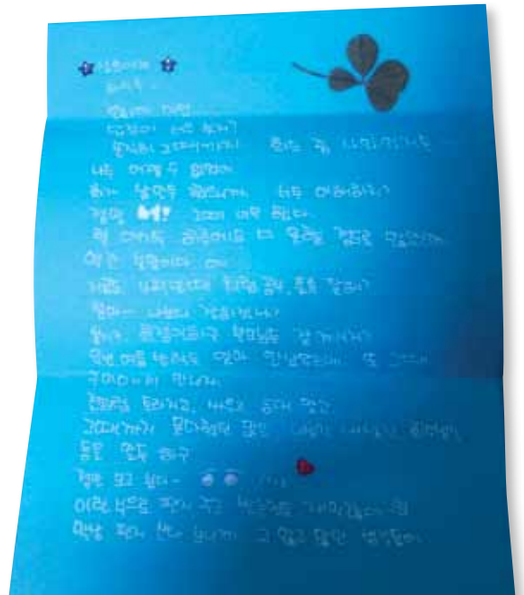
초등학교 6학년 당시, 아버지의 갑작스런 전근으로 온 가족이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나름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도시생활에는 즐거움만이 가득할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랬던 제가 전학 첫날 마주한 것은 말투가 이상하다고 놀리는 낯선 아이들이었습니다.

편지는 그 시절의 돌파구

그때까지 자신이 사투리를 쓴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었기에, 이러한 놀림은 제게는 그야말로 매우 당황스럽고 또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는 구경도 해본 적 없었던 예습학원을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또한 그 이전까지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었던 당시의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어린 인생 나름의 최고 암흑기를 보내고 있던 제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바로 고향에 두고 온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편지였습니다. 직접 손으로 써서 우표를 붙여 주고받은 편지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 언제나 우편함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살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1주에 1~2번씩은 항상 왔던 편지가 약 1년 후에는 2~3달에 1통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편지를 주고받는 친구도 처음에는 약 5명 내외였는데 2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애틋한 마음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편지는 지나치게 많은 정성과 시간을 요구하기도 했고 각자 중학생이 되고 여러 가지로 입장이 달라지면서 공통의 관심사가 없어졌던 것도 크게 차지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다시 소통하다

남은 2명의 친구들은 어린 시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었던 절친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각자의 일상에 치이고 관심사가 달라지면서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차 교류가 사라지고 잊혀지고 있었던 친구들과 다시 교류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블로그와 메신저였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친구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같은 가수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계기로 다시금 서로의 블로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네이트온 같은 메신저 프로그램이 유행하자 이를 통해 더욱 자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서로 좋아하는 것이나 취미, 공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주변 친구들, 선생님들께는 차마 말하지 못하던 창피한 것들이나 마음 속 깊이 담고 있던 진심까지도 공유하곤 하였습니다.

외려 멀리 떨어져 있기에 더 쉽게 가장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SNS를 통해 슬픔과 기쁨을 나눈 덕에, 약 10여 년 뒤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고 만난 지 20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그 둘은 제게 가장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게 SNS는 자칫 그저 추억으로만 남을 친구들을 추억이 아닌 현실에까지 남겨준 고마운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MOTIE

special theme



전자전기과 **이강** 사무관
(울산광역시청 소속, 산업부 실무 수습 → 현재 복귀)

소통의 창구? 직장인의 족쇄?

SNS 메신저는 사적 영역은 물론 공적 영역에까지 파고들며 오늘날 소통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면 SNS 메신저의 등장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사람들 간의 소통에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소통의 장애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가?





메신저로 시·공간적 소통 장벽을 넘는다

"서로가 소홀했는데 / 덕분에 소식 듣게 돼 (하상욱 단편시집 '애니팡')".

얼마 전 유행했던 애니팡이 이제는 아주 오래 전의 일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변화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뜻일 것이다. 이제 SNS 메신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SNS 메신저는 우리 삶 깊이 파고 들고 있다. 단순히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넘어 게임, 선물, 인터넷 검색은 물론 앞으로 은행업무 등 다른 다양한 기능들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 SNS 메신저로 생활 전반을 처리할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올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SNS 메신저는 사적 영역은 물론 공적 영역에까지 파고들며 오늘날 소통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다면 SNS 메신저의 등장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사람들 간의 소통에 긍정적인 역할만을 하고 있는가?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소통의 장애를 불러일으키지는 않는가?



SNS 메신저와 소통

며칠 전 고등학교 친구들과의 메신저 단체방에서 한 친구가 학창 시절 사진을 올린 적이 있다. 한 친구는 와이프가 옛 사진 속 전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현재 이혼위기라는 둥 오랜만에 친구들과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얼마나 하루하루 현실에 쫓기며 살고 있는가. 잊고 지내던 지인들과 SNS 메신저로나마 간간이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다. 공적 영역에서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동서고금을 통해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불편한 관계는 변하지 않는 진리다.

혹시나 부하직원에게 이런 말을 하면 본의와 달리 불편해 하지나 않을지, 괜히 편하게 이야기했다가 상사가 나를 버릇없다고 여기지나 않을지.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지만 소통의 장벽은 높고 견고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SNS 메신저의 혁명적인 등장은 소통의 장벽을 송두리째 뒤흔든다.

소통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지 않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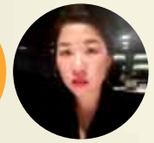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SNS 메신저 활용은 소통의 장벽을 허물었는가? 아니다. 장벽은 그리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장벽은 족쇄로 변해 우리를 구속한다. 오늘날 SNS 메신저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는 메신저 증후군이라 불릴 정도로 직장인들에게 심각한 부담거리로 작용하고 있다.

아무리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미명하에 메신저가 활용될지라도 이는 근무시간 외 업무부담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한다. 더군다나 SNS 메신저는 당사자의 확인여부까지 파악할 수 있어 몇몇 기업들은 확인 시간에 따른 답변 여부를 고과에 반영한다고까지 한다. 가히 메신저 감옥이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시간 외 메신저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다면 월급의 10%까지 반납할 용의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변화는 언제나 새로운 부작용과 함께 한다. 그리고 그 성공여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물론 SNS 메신저가 소통의 장벽을 허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SNS 메신저는 소통의 장벽을 허물어 더욱 효율적으로 우리를 감옥 속으로 밀어 넣고 말 것이다. MOTIE



special theme



디자인생활산업과 **김영경** 전문관

엄지가 쉬면 마음이 불안한 이유



헤어진 애인의 SNS 훔쳐보기

헤어진 남친(여친)의 SNS를 몰래 훔쳐본 적이 있는가? Yes or No?

Yes. 나도 모르게 그만, 헤어진 남자친구의 SNS를 찾아가 그가 무슨 짓을 하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훔쳐본 적이 있다. 근데 나 없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사람의 SNS를 훔쳐본 내 모습에 화가 났었다.

'나만 바보였네. 얘는 잘 살고 있잖아? 앗! 근데, 여기 댓글 단 이 여잔 누구지? 새로 사귄 여자 친구인가? 누구인지 알아볼까?' 지금 우리는 엄지손가락 하나로 상대방의 일거수 일투족을 손쉽게 알아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끔 나도 내 SNS에 글을 올리면서 불안할 때가 있다.

너무 놀러 다니는 글만 올리나? 세종시 내려와서 놀러만 다닌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글을 올리자마자 여지없이 카카오톡이 온다. '맨날 놀러 다니는 거 같아~ 여유롭구나?'

겸손과 자랑 사이, 그리고 선택장애

최근 햄릿증후군(Hamlet Syndrome), 험블브래그(Humblebrag) 등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다. 자신의 사소한 일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대중에게 결정을 맡기는 햄릿증후군(ex. 청바지를 사려고 하는데 제이브랜드(J brand)가 좋을까요? 시위(Siwy)가 좋을까요?), 자신을 비난하는 듯하지만 알고 보면 은근히 자랑질인 험블브래그(ex. 우리 남편이 생일이라고 ㅇㅇㅇ통 가방을 사줬는데, 너무 돈 아까워) 등, SNS를 통해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편리한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나 자신을 위축시키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리고 아쉬운 점도 많이 있다. SNS가 발달하기 전,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현지에서 엽서를 구매해서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 안부를 전하기도 했고, 어학 연수를 하면서 매일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일주일치를 모았다가 한 번에 보내곤 했다.

편지지를 고르고, 우체국에 가서 매번 다른 우표를 구매하고, 예쁘게 풀칠해 우체통에 넣는 그 설렘과 답장을 기다리는 두근거림이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 같다. 지금은 감사함도, 고마움도, 미안함도, 화난 것도… 모두 내 글씨가 아닌 카카오톡체가 나를 대신하여 전달해주고 있다.





오늘만큼은 카카오톡 대신 편지

난 특히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를 얻고, 네트워크를 쌓는다. 퇴근하면 사무실에서 못하는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집에 가서 몰아서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혼자 있었던 아이와 놀아주지 못하고 서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가끔 퇴근해서도 이어지는 카카오톡으로 아이는 가끔 "엄마 카카오톡 좀 그만해! 나 그 소리 싫단 말이야!"라고 말한다. 항상 아이에게 미안한데, 내 엄지 손가락이 쉬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 SNS는 분명 나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과한 것은 부족함과 마찬가지로, 나의 지나친 활동으로 인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이 시간을 빌어 반성하고 집에서는 엄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편에게 오늘 바로 편지 한 통 쓰겠다. MOTIE

Social Networking Service

special theme



기획재정부 파견 **이예원** 사무관



페이스북으로 마음을 열다

2월에 '좋아해줘'라는 영화가 개봉했다. 유아인, 이미연, 최지우 등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하여 화제가 되었으나, 총 85만 명의 관객 수를 기록하여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세 커플이 SNS의 일종인 페이스북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다루며, 인간관계 중 가장 소통이 깊은 '사랑' 의 영역까지도 SNS가 깊숙이 관여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아래의 내용에는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사랑의 매개체인 페이스북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먼저, 영화 속 톱 배우인 노진우(유아인)는 드라마 작가인 조경아(이미연)를 좋아하지만 티를 내지는 않고, 그녀의 페이스북을 몰래 들여다 보며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는 조경아의 아들 사진을 찾아보곤 한다. 그러다가 조경아가 외국으로 떠나려 공항으로 향하자 페이스북에 그녀를 찾는 게시글을 올리고, 결국 페이스북으로 제보를 받아 그녀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커플인 함주란(최지우)–정성찬(김주혁) 커플은 서로 친구처럼 티격태격하며 지내는 사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함주란이 정성찬의 친한 동생 강민호(하석진)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하게 된다. 정성찬은 함주란과 동생을 연결시켜주기 위해 함주란이 페이스북에 분위기 있는 사진, 등산을 하는 사진 등 동생이 좋아할 만한 사진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페이스북을 통해 연결된 함주란과 동생은 실제로 만나 교제하지만, 결국 함주란과 정성찬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깨달아 둘은 해피엔딩을 맞게 된다.

마지막 커플인 이수호(강하늘)–장나연(이솜) 커플은 상대적으로 어린 커플인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수호는 장나연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나누며 친해지고 결국 연인이 된다. 세 커플은 전혀 다른 나이, 직업,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을 만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싫어요"도 있어야 진정한 관계

실제 SNS 활용도가 평균 이하인 사람으로서 SNS를 이 영화에서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때 SNS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4년 전 혼자 미국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외국인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했었다. 그리고 연수원에 있을 때 조를 나누어 국장급 멘토님을 지정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조원들과 멘토님이 네이버 밴드를 구성하여 가끔 안부도 묻고 좋은 글귀도 공유하는 장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중학교 졸업 이후 만나기 어려웠던 동창들이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신청을 하며 연락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처럼 SNS는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강화해주며 소통 장벽도 넘게 만들어주는 수단이지만, 실제 접촉이 없는 온라인이라는 점과 강한 공개성은 SNS를 통한 깊은 관계 형성에 한계로 작용한다. SNS에는 실제보다 행복해 보이거나 예뻐 보이는 사진, 혹은 자랑하고 싶은 사진을 업로드하거나, 표면적인 안부 인사나 댓글 등을 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영화 속에서 함주란(최지우)이 강민호(하석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는데, 정성찬(김주혁)은 그 사진에 자꾸 '좋아요'를 누른다. 함주란이 왜 자꾸 좋아요를 누르냐고 따지자, 정성찬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 "싫어요가 없으니까". '싫어요'가 없어 '좋아요'를 누른다는 이 대사는 SNS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SNS가 정말로 관계를 강화해주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SNS에 좀더 진실한 마음을 담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MOTIE



같은 듯 다른,
다른 듯 같은

연두와 초록은 잘 어울립니다.
도넛과 커피는 잘 어울립니다.
빨강과 초록도 잘 어울리지요.
떡과 커피도 잘 어울리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도 잘 어울리지만
서로 다른 듯 보이는 이들도 잘 어우러집니다.

64 울림 휴게실 I
- 밴드 좋아하세요?
- 신입 사무관의 산업부 적응기
- 중국음식 한담(閑談)

72 명물소개 I 바둑커플 〈윤재웅 4단과 김세실 2단〉 산업부의 미생

75 동아리소개 I 배드민턴 동호회

78 세종플러스 I 가족나들이와 자녀 교육을 한 번에!

80 사진 에세이 I 하늘, 꽃에 취하다

82 용어의 발견 I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IT관련 용어들

84 건강 생활백서 I 재미있는 건강상식~

86 생활의 지혜 I 알아두면 유용한 스마트폰 앱

88 편집위원 소개

90 이번 호를 준비하며

A ULIM

울림휴게실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강초롱** 연구사

밴드 좋아하세요?



우리의 연주가 노래가 되는 순간

음악은 일상에 다른 차원으로 색을 입혀준다. 영화나 드라마의 결정적인 순간엔 배경음악이 몰입을 한층 높이고, 마음을 달래거나 공감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도 하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예전 기억을 끄집어내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했지
이게 그 때 그 노래라도 그렇지
달랑 한 곡 들었을 뿐인데도
그 많고 많았던 밤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다니
〈장기하와 얼굴들 - 그 때 그 노래 中〉

음악을 많이 좋아하지만 밴드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던 내가 합주실에 가게 된 건 사내 송년 장기자랑 준비 때문이었다. 당시 다니던 회사의 팀장님이 팀원 단합 차원에서 밴드 결성을 결심하셨다. 누구 하나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몇 차례의 연습 끝에 드디어 우리가 아는 노래가 되어 합주실을 가득 채운 순간! 나는 합주의 매력에 빠져버렸다.
이후 본격적으로 취미 밴드를 찾아다니며 오디션을 보고, 합류하고, 팀을 조금씩 옮기긴 했지만 꾸준히 공연도 하면서 올해로 8년째 계속하고 있다.

익숙해서 더 좋은 '퀸'과 '레드 핫 칠리 페퍼스'

이 글을 읽고 밴드 음악을 좋아하거나, 밴드를 하게 될 분이 생기길. 아니면 방구석 먼지를 뒤집어쓴 악기를 다시 꺼내길 기대하며, 좋아하는 밴드 몇 팀을 소개한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밴드음악의 시작은 역시 '퀸(Queen)'. 1970년대 데뷔한 영국의 록 밴드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한 팀이다. 대중성 높은 음악을 선보여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퀸을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보컬 프레디 머큐리(Freddie Mercury)는 개성있는 패션(?)과 시원한 가창력, 좌중을 압도하는 쇼맨십으로 보컬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방송 배경음악으로 익숙할 〈Don't Stop Me Now〉,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천재 데이빗 보위(David Bowie)와 함께 한 〈Under Pressure〉, 드라마틱한 전개로 뮤지컬을 연상 시키는 〈Bohemian Rhapsody〉 등을 대표곡으로 꼽을 수 있다. 다양한 퀸의 음악 중 적어도 한 곡은 그대의 취향이 있을 거라 확신한다.
다음 그룹은 드럼,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보컬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밴드 구성의 환상적인 조합을 보여주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 1983년 미국에서 결성되어 지금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팀으로, 각 파트가 뛰어난 실력으로 사랑받는다. 음악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얼터너티브 록*으로, 펑크(Punk), 사이키델릭 등 다양한 음악 스타일이 섞여 고유의 색을 완성했다. 잦은 멤버 교체 속에서 보컬 앤소니와 베이스 신(神) 플리가 팀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데,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그루브 있는 리듬에 편한 멜로디, 보너스로 멋진 연주가 더해져 언제 들어도 신난다. 특히 이 팀은 재미난 가사만큼이나 재미난 영상이 많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딱딱 맞는 라임이 따라 부르는 재미가 있는 〈Can't Stop〉, 뮤직비디오에서 여러 밴드를 패러디해 화제가 된 흥겨운 리듬의 〈Dani California〉, 영상 속 인파에 당장이라도 섞이고 싶은 〈The Adventure of Raindance Maggie〉 등을 추천한다. 여러 밴드를 통틀어 손에 꼽는 최고의 라이브인 2003년 아일랜드 슬랜 캐슬(Slane Castle)에서의 라이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 얼터너티브 록(Alternative Rock; 얼터록, 얼터) : 록의 한 장르로, 1980년대 생겨나 기존 록음악의 평범한 구성 방식에서 벗어난 록. 최근에는 메탈을 벗어난 모든 록 음악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쓰이고 있다(위키피디아)

풍성한 사운드의 얼터록 밴드 '뮤즈'와 '콜드 플레이'

이번엔 기본적인 밴드 구성에 신디(Synthesizer)를 이용해 풍성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얼터록 밴드 두 팀을 더 만나보자. 처음 접한 순간 전 앨범 전 곡을 다 들어보게 만들었던 밴드 '뮤즈(Muse)'. 1994년 영국에서 결성된 브릿팝 기반에 하드록 느낌을 섞은 팀으로, 웅장한 분위기와 함께 귀에 박히는 기타 리프가 일품이다.
뮤즈의 프론트맨 매튜 벨러미(Matthew James Bellamy)는 뛰어난 보컬 실력 뿐 아니라 기타와 건반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각 악기의 맛을 제대로 살린 세련된 사운드로 가득 찬 이들의 음악은 귀 호강을 제대로 시켜준다.



우리나라에 뮤즈가 처음 알려질 무렵, 많은 팬을 양산한 〈Time is Running Out〉, 도입부의 기타 연주가 인상적인 〈Plug in Baby〉, 뮤즈 사운드의 정점을 찍은 〈Knights of Cydonis〉(라이브에서 더욱 빛난다!) 등을 대표곡으로 꼽을 수 있으며, 비교적 최근 발표한 〈Uprising〉과 〈Resistance〉에서는 한층 다채로운 연주와 메시지를 담아 또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다음은 '콜드플레이(Coldplay)'. 1998년 영국에서 등장한 '착한 밴드'이다. 싱글 〈Yellow〉의 첫 발표 당시 부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 팀은 현재까지 5천여만 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렸다. 독특한 점은 다수의 밴드들이 마약, 사생활 등으로 가십을 몰고 다닌 데 반해 사회/정치적으로 활발한 '착한' 활동을 한다는 것. 각종 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약을 사용하는 멤버가 있으면 즉시 탈퇴시킨다는 방침이다.

얼터록+브릿팝을 기반으로 하는 그들의 음악은 해를 거듭하면서 일렉트로닉 요소가 많이 더해지면서 화려하고 몽롱한 느낌이 짙어져 더 이상 록 밴드로 불리기에는 다소 어려워졌지만, 여전히 2000년대에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록 밴드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듯 하다 (그래서 필자는 초기 앨범을 훨씬 더 좋아한다). 음악도 역시 '착한' 그들의 곡은 편안함이 강점이다.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듯한 〈Yellow〉, 담담함 속에 절절함이 묻어나는 〈In My Place〉, 평야를 보는 듯한 〈Paradise〉, 그리고 최근의 〈Adventure of a Lifetime〉도 추천곡.

* 록과 팝의 경계에 있는 다른 팀들의 곡도 같이 들어보시길. Maroon 5 – 〈Sugar〉, 〈Sunday Morning〉 , 〈Moves Like Jagger〉 / Fall Out Boy – 〈The Pheonix〉 / Fun – 〈We are Young〉 〈Some Rights〉 등

얼터록 밴드 중 개인적인 애정으로 한 팀을 더 소개한다. 1992년 미국에서 결성된 '위저(Weezer)'가 그 주인공. 일상적인 가사와 솔직한 연주, 곳곳에 담긴 유머가 매력적인 밴드이다. 평범한 듯 하면서도 헤어나오기 힘든 독특함을 지닌 이 팀은 시리즈 앨범인 블루-그린-레드를 셀프 타이틀로 연달아 발표하며 팬덤을 확실히 구축했다. 조용히 터져나오는 〈Say It Ain't So〉, 경쾌한 리듬의 〈Island in the Sun〉 정도를 대표곡으로 꼽을 수 있겠으며 앞선 두 곡과는 살짝 다른 느낌의 〈We are All on Drugs〉, 〈Slob〉도 매력적이다.



* 펑크에 끌린 당신! Sum 41(신나고 신나는 〈Still Waiting〉, '멋진 펑크' 〈With Me〉, 전쟁을 연상시키는 〈Screaming Bloody Murder〉), Blink 182(〈All the Small Things〉, 〈First Date〉, 〈Dammit〉), 드라마틱 펑크 MCR(〈I'm Not OK〉, 〈Helena〉, 3집 'The Black Parade' 전체!)도 함께 들어보자

펑크로 일상탈출 '오프스프링'과 '그린데이'

밴드 소개의 마지막은 역시 펑크(Punk)! 밴드 음악이라고 하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징징거리는 기타, 텐션 있는 베이스, 마구 달리는 드럼, 장난꾸러기 보컬로 구성되어 있다. 신나게 일상을 잊을 수 있게 해주는 악동들을 소개한다.

90년대 네오펑크의 양대산맥이라 하면 '오프스프링(The Offspring)'과 '그린데이(Greenday)'를 주저 없이 꼽을 수 있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각 팀의 개성이 뚜렷한데, 개인적으로는 오프스프링이 그린데이보다 좀 더 형아 같은 느낌. 두 팀의 음악은 스트레스 만땅일 때, 머리를 비우고 싶을 때 들으면 효과 만점이다. 흥으로 넘쳐나는 오프스프링은 어느 곡을 골라도 그대를 신나게 해 줄 것이다. 〈The Kids Aren't Alright〉, 〈Pretty Fly〉, 〈Hit That〉, 〈All I Want〉 등을 추천한다. 특히 명반으로 꼽히는 5집 'Americana' 는 전곡을 꼭 들어보길 권하고 싶다.

또 다른 장난꾸러기 그린데이는 우리나라 스쿨밴드의 입문곡이라 할 수 있는 〈Basket Case〉로 잘 알려진 팀이다. 쉬운 코드와 대중성 있는 멜로디, 그리고 유쾌함 속에서 문득문득 보여주는 진지함이 매력이다. 〈American Idiot〉, 〈Jesus of Suburbia〉, 〈Holiday〉 등을 추천할 수 있으며 7집 'American Idiot'과 8집 '21st Century Breakdown'에서 그들의 대표곡을 다 만나볼 수 있다.

고르고 골랐지만 미처 소개하지 못한 밴드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 또한, 멋진 사운드와 함께 '우리말이라서' 더 공감할 수 있는 국내 밴드*도 놓칠 수 없으니,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밴드음악의 세계에 주저 말고 빠져 보시길. MOTIE

* 국내 모던록의 선구자 델리스파이스, 불독맨션 / 조선 펑크 1세대 노브레인, 크라잉넛, 레이지본 / 밴드의 세대 교체 쏜애플, 안녕바다 / 겁 없는 젊은이들 글렌체크, 솔루션스, / 그리고 잔잔한 감성의 페퍼톤즈, 검정치마, 가을방학 등

** 취미밴드를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네이버 음악스케치(가입인사, 구인 : http://cafe.naver.com/ping3959, 뮬(구인구직 게시판) : http://mule.co.kr 등을 찾아보자

▼ 그린데이 커버밴드 공연모습. 매 합주마다 체력 고갈로 다 같이 설렁탕을 먹으러 갔다.



울림휴게실



에너지자원정책과 **안준호** 사무관
(전남도청 소속, 산업부 실무 수습 → 현재 복귀)

신입 사무관의 산업부 적응기

편의점 불이 꺼져야(?) 마감되는 나의 하루

내가 왜 수습부처로 산업부를 선택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잘 모르겠다. 아마 그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나 순간의 결정은 4개월의 생활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부터 그 변화를 조금씩 보여주고자 한다. 연수원 졸업과 동시에 시작된 7주간의 기업연수를 마치고 장장 14년만에 서울 탈출, 아니 신림동 탈출을 이뤘다. 집은 역시 회사와 가까워야지 하는 무모한 용기(?)로 산업부에서 내 방이 훤히 보이는 원룸을 계약하였는데, 이럴 수가! 24시간을 넘어 25시간 한다는 1층 편의점이 저녁 10시에 문을 닫는다. 이렇게 세종시 생활이 시작되었다. 출근 첫날, 운영지원과 주무관님에게 산업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들은 후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자원정책과에 배치받게 되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책 내음과 약간 상기된 표정으로 컴퓨터를 바라보는 선배님들 속에서 날 바라보는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고향 옆 마을에 살던 친구 형님께서 웃는 얼굴로 날 바라보고 있었다. "야, 너 나야냐?" 하는 말에 혹시나 하는 맘이 확신으로 변했다. 비록 나이차가 있어 많이 보진 못했지만 엄친아로 유명했던(?) 그리고 그 친구가 많이 자랑스러워하던 그분이 맞았다. 이런 인연이!

민원님들, 아는 것만 물어보시면 안될까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선배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 첫날 과장님은 안 계셨다. 담날 '잰 뭐지?' 하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자리에 앉아서 잠깐 흔들렸던 멘탈을 복구하고 있으니, 주변 선배님들이 "이 정도는 알아야 일을 하지"하며 책을 듬뿍 주신다. 에너지 기본계획,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 강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편성지침, 에너지 바우처 사업안내서 등등 어느새 내 자리는 책으로 가득 찼다. 선배님들의 후배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었다.

옆자리에 계신 (자원개발과 과장님께서 '두치와 뿌꾸'의 두치를 닮았다고 주장하시는) 사무관님께선 항상 전화 통화로 바쁘시다. 보통은 사무실 전화와 핸드폰을 양손에 들고 동시에 통화를 하는 신기를 보여주시지만 종종 하나를 놓치기도 하신다. 그때부터 난 긴장이 시작된다. 분명 방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사업안내서를 다 읽었는데 민원전화는 꼭 내가 아직 이해 못한 부분만을 물어본다. 가끔씩 아는 내용 물어보는 민원인이 정말 고맙게 느껴진다.

민원전화 응대를 필두로 에너지바우처 고충상담을 전담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복지사업이고, 그 대상이 다양한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되신 분들이다 보니, 우리가 만든 지원 범위를 벗어난 분이 종종 지원을 문의하신다.

안타까운 맘에 그 분의 아쉬운(?) 소리나 인생굴곡을 들어주곤 있지만 왠지 모르게 이런 민원 전화를 받고 나면 내 맘도 편치가 않았다. 아직은 민원 응대에 서투르다 보니 민원전화는 주로 그 분을 달래는 데 애를 쓰게 된다. 최대한 목소리는 부드럽게 하고, 민원인이 화를 내면 거기에 공감해 드리려고 하니 10분 통화는 기본이요, 최대 40분은 옵션이다. 어떤 분은 화를 나에게 다 분출하고 나서 속이 후련했는지 고맙다면서 날 친절한 공무원으로 추천하고 싶다고 하셨다. '이런 말은 먼저 추천하고 나서 하셔야지' 약간은 야속하다.



숟가락만 얹었던 첫 번째 보고서의 추억

첫 번째 보고서는 WEO-2015의 요약이었다. 책은 딱 봐도 모서리로 한 대 맞으면 정말 아플 것 같은 두께와 판례에 책으로 사람 때려도 특수폭행이 안되니 고시생은 싸움에 유리하다는 술자리 이야기가 생각나는 그런 흉기(?)였다.

더군다나 영어다. 영어! 한 페이지 읽는 데 30분이 소요된다. 문제는 친절한 저자가 이해를 돕는다고 서양식 비유를 무지막지하게 넣어버려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다가왔다.

며칠을 씨름하여 요약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3~4번의 수정을 거치면서 문장 하나하나에 서기관님의 필체가 듬뿍 들어가 서기관님이 다 하시다시피한 보고서가 완성되었고 통과되었다. 지금은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중이다. 아직도 내 야사(夜事)는 진행 중이고, 보고서 작성은 끝이 없다.

국장님과의 첫 번째 술자리. 처음 나에게 국장님과 과장님은, 감히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운, 무서운 존재였다. 그러나 어느 가을 산행날 국장님께서 양주를 선물로 꺼내신다. 부끄럽지만 태어나서 그 날까지 한 번도 양주를 못 먹어봤다. 저렴한 인생인가 보다. 막내라고 양주를 챙겨주셔서 몇 잔을 마시니 술이 착착 감기면서 머리가 핑핑 돌기 시작하였다. 함께 노래 부르며 즐기다 보니 국장님과 과장님이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내 기억이다.

이글을 쓰는 4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나만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 싣지 않는 이야기도 참 많다. 생각해 보니 공부를 시작한 20대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극적인 시간이 또 있었나 싶다. 요즘은 에너지바우처가 정상에 올라 민원전화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민원 응대도 자칭 많이 숙련되어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자주 보지 못한 동기들과 만나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올 동기들에게 산업부 자랑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한 달 후면 도청으로 정식 발령이 나게 된다. 발령 전에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릴 테지만 우리 에너지자원정책관 국장님, 과장님과 여러 선배님들, 동문·동향 선배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너무 즐겁게 지낸 것 같다. MOTIE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윤선민** 사무관

중국음식 한담(閑談)

요즘 TV에는 소위 '먹방'이 대세입니다.
대외무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우리나라답게(!)
이런저런 세계 요리들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짜장면, 짬뽕을 넘어선 본토 중국요리에
대한 소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경험담을 통해 본 중국요리를 즐기는 팁을
우리 산업부 식구들과 나눠보겠습니다.





고수가 되려면 '고수'와 친해져라

고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아시아 향신채입니다. 향채(香菜), 코리앤더, 팍치 등등으로 불리고 있는데 비릿한 맛과 향 때문에 우리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는 필수불가결한 향신채입니다.. 중국사람들은 이웃나라 한국사람들이 고수를 잘 못먹는다는 것을 신기해 합니다. 어떻게 그 맛있는 것을 못 먹냐고…. 사실 고수와 친해지면 기름기 많은 중국요리의 느끼함을 싹 제거해주는 그 맛에 푹 빠지게 된답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한국인들에게는 적응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중국에 출장갈 때, 힘들어도 고수가 들어있는 음식을 한번 맛보시면 중국음식의 고수가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벨기에 O가든 맥주의 향긋한 향은 고수 씨앗에서 그 향을 뽑는 것 알고 계시나요? 혹시 중국인 친구가 고수를 못 먹는다고 놀리면 조용히 깻잎을 먹여보세요. 정말 진저리 치면서 싫어합니다. 신기하죠? 깻잎도 못 먹는다고 응수해 보세요!

고기는 돼지다, 돼지는 고기다



우리가 사랑하는 탕수육의 '육'자는 한자로 당연히 고기 '肉'자이지요. 하지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는 肉자만 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중국에서 고기肉자는 당연히 돼지고기를 가리킵니다. 돼지고기 이외의 고기는 '소고기(牛肉)', 양고기(羊肉)'등 반드시 肉자 앞에 종류를 알리는 한자를 붙입니다. 중국에서는 쌀값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가지표가 돼지고기 값일 정도로 중국인들은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요리에서 고기=돼지고기이고 돼지고기=고기랍니다.

MSG가 싫다면 종업원에게 미리 말해라, 빼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요리책을 사서 요리 레시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요리책에 다양한 재료가 등장하지만 거의 모든 페이지에 빠지지 않는 하나의 재료가 바로 MSG입니다.
우리는 몰래 쓰기도 하고 써놓고 안 썼다고 우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국 요리책에서는 MSG가 당당히 정식 재료로 떳떳이 페이지에 이름을 올립니다. 바로 MSG(味精) 한 스푼. 중국 출장 가시거든 식당 종업원에게 MSG를 빼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외국인이 자주 오는 고급식당에서는 어쩌면 MSG를 빼고 요리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식당 종업원들은 "왜 빼지?"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요리사에게 그 말은 전달해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요리사는 잊어버렸는지, 습관이 되었는지 여전히 감칠맛 가득한 요리를 여러분에게 대접할 겁니다^^.

반찬 나왔다고 밥 찾지 마라, 밥은 식사의 마지막에 나온다



상하이의 어느 식당. 여러 가지 요리가 푸짐하게 한상 차려졌습니다. 군침이 절로 돕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밥은 주지 않는 걸까요? 세상에 반찬만 주고 밥은 왜 안 나올까요? 배는 고프고 음식들은 맛있어 보이는데 밥을 주지 않으니 도통 식사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에서는 먼저 '반찬(요리)'을 충분히 즐긴 다음 약간의 허기를 채운다는 의미로 주식(밥, 국수, 만두 등)을 간단히 먹습니다. 그러니 중국출장 또는 여행에서 들른 중국식당이 밥을 늦게 내줘서 반찬 다 먹을 때 까지 식사 못했다고 하시면 안돼요~! 반대로 한국을 잘 모르는 중국인들을 접대하게 된다면 한식은 밥과 반찬이 한꺼번에 나온다고 이야기 해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상 네 가지 한담(閑談)을 통해 여러분의 식도락 세계가 더욱 풍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MOTIE

명물소개



신재생에너지과 **윤재웅** 사무관

바둑에서 미생(未生)은 말 그대로 아직 살아있지 못한 돌을 뜻한다. 극도로 시달리다가 상대에게 승기를 넘겨줄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저 근근이 살아가면 다행인 그런 서글픈 돌들이다. 좋은 학벌과 화려한 스펙을 가진, 그리고 아마도 나보다 훨씬 능력 있을 수많은 미생들을 보며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과분하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깨가 무겁다.

바둑커플

〈윤재웅 4단과 김세실 2단〉

산업부의 미생



未生



산업부 최초의 프로바둑기사 출신 공무원

산업부의 미생. 작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처음 들어온 나에겐 어느새 이런 타이틀이 붙었다. 윤태호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TV드라마 「미생」이 히트를 한 후였고, 나는 프로바둑기사가 산업부에 들어온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이다. 미생은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주인공 '장그래'가 프로입단에 실패한 후 겪는 냉혹한 사회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나는 미생을 드라마로는 보지 않았지만 만화책으로 접해보았고, 장그래의 어리바리함에 꼭 나를 보는 것 같았던 기억이 있다. 만화 속의 장그래는 점점 성장해 가는데 나는 아직 어리바리한 채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미생이라는 말은 만화, 드라마를 넘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나 비정규직들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되었다. 바둑에서 미생(未生)은 말 그대로 아직 살아있지 못한 돌을 뜻한다. 극도로 시달리다가 상대에게 승기를 넘겨줄 수도 있으며 심할 경우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저 근근이 살아가면 다행인 그런 서글픈 돌들이다. 좋은 학벌과 화려한 스펙을 가진, 그리고 아마도 나보다 훨씬 능력 있을 수많은 미생들을 보며 지금 나의 상황이 너무 과분하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어깨가 무겁다.

나홀로 깨우쳐가는 길, 바둑

미생에서 장그래는 난관에 부딪힐 때면 과거 바둑 스승의 말에서 영감을 얻어 해결책을 찾곤 한다. 미생이 방영된 이후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물었던 것도 이것이다. 정말 일할 때 바둑판이 머리에 그려지느냐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단호하게 '아니오'이다. 일상에 바둑을 연관시켜 생각한 기억은 별로 없다. 또한 '네가 둔 수에는 책임을 져야 해', '판 위에 쓸모없는 돌은 없어' 등의 얘기를 해주는 만화 속 장그래의 스승 같은 사람은 바둑계에 없다. 바둑은 철저히 혼자 하는 게임이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모든 것을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다.

이창호 9단은 어릴 적 조훈현 9단의 내제자(스승의 집에서 동거하며 바둑을 배우는 제자)로 수년을 생활했지만 기술적으로 스승에게 직접 배운 것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조훈현–이창호 사제지간이 유명하긴 하지만, 이세돌이나 박정환 같은 초일류를 포함한 대다수 프로기사들의 스승은 (일류기사들에 비해) 바둑 실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으며 일반인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런 사람들이다. 바둑계에서 스승이란 그저 공부할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다. 나머지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내야 한다. 그런 세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함께 하는 일이 서투르다. 가장 공감이 가던 미생 속 대사는 '나만 보면 되는 세계였다'는 장그래의 독백이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쓸데없는 짐을 짊어지기도 하며 이것이 주변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기도 한다. 특히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물어보는 것이 어렵다. 나도 어떤 일이 있을 때 몇날며칠을 끙끙대다가 선배님이나 과장님께 질문하면 바로 해결되는 일이 많이 있었으며, 심지어 내가 처리할 일이 아니었던 것도 종종 있었다. 산업부에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에 적응하고 능숙할 수 있게 되려면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오락실에서 만난 프로바둑기사 커플

내 아내 역시 바둑프로기사인데,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신촌의 한 오락실에서 만났다. 한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였던 펌프(pump)라는 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우리들의 주된 데이트 코스는 카페, 도서관, 오락실이었으며 바둑은 전혀 우리 사이에 끼어들지 못했다. 지금은 한물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이 펌프를 한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펌프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도 하곤 한다. 세종시에 처음 왔을 때는 오락실을 방문하기 위해 대전 원정도 자주 가곤 했지만, 왕복 3시간의 물리적 거리에 막혀 빈도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다. 언젠가 세종시에도 펌프가 생기길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바둑을 잘 두니 기억력이 좋을 것이라든가, 머리가 좋을 것이라든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정말 기억력이 좋지 않다. 대면식 같은 것이라도 할 때면 선배들의 이름이나 과를 가장 늦게 외우는 편이며, 그마저도 다음날이면 잊어버린다. 바둑 기사들이 한번 둔 바둑을 그대로 복기해내는 것을 보고 기억력이 좋은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바둑돌끼리의 관계를 기억하는 것이지 놓인 위치 그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가령, 바둑을 전혀 모르는 사람 둘이 둔 바둑이 있으면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이것은 그들이 둔 수들에 의미와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공감이 가던 미생 속 대사는
'나만 보면 되는 세계였다'는 장그래의
독백이었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쓸데없는 짐을 짊어지기도 하며
이것이 주변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기도 한다.



▲ 어린이 바둑대회에서 윤재웅 공업사무관(파란옷)

바둑을 두면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집중력이 좋아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바둑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런 식의 홍보에 매우 회의적이다.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을뿐더러, 바둑의 진정한 매력을 드러내지 못하며 오히려 일반인들과의 벽을 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깊어질수록 바둑은 재미있다

내가 생각하는 바둑의 가장 큰 매력은 '재미있다'는 것이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의 신선놀음이 바로 바둑이다. 처음에 익히기는 쉽지 않지만 알면 알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바둑이라고 생각한다. 둘 다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판타지소설이나 무협지가 아닌 고전문학이나 철학 책 같은 느낌이랄까.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바둑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혹시 처음은 재밌지만 쉽게 식상해지는 그런 취미들에 질리신 분이 계신다면 바둑을 배워보시기를 추천한다.

산업부에 새로 들어온 바둑프로기사가 어떤 녀석일까 궁금하셨던 분들이 계실텐데 이렇게 지면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울림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글을 쓰다 보니 신입다운 패기가 전혀 없는 것 같아 걱정이다. 바둑과 관련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

하지만 바둑 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어리바리한 신입일 뿐이다. 언젠가 나도 여러 선배님들처럼 멋진 산업통상자원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MOTIE

동아리소개



운영지원과 **박충희** 주무관



셔틀콕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리세요~
배드민턴 동호회

언제든지, 누구나

우리나라 배드민턴 동호인 수가 벌써 300만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과 계절,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실내 스포츠이기도 하고, 어릴 적 동네 약수터에서 치던 동네 배드민턴의 추억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감 때문에 점점 그 규모가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1820년 경 인도의 뭄바이(前 봄베이) 지방에서 전통적으로 손바닥이나 빨래방망이를 이용하여 즐겨하던 푸나(Poona)라는 놀이를 영국 주둔군이 영국으로 돌아가서 스포츠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배드민턴이라는 이름은 당시 최초로 푸나경기가 열렸던 '배드민턴(런던에서 140km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196kcal가 소모되는 것과 비교해서 그 효과가 훨씬 높으며, 근육량을 늘려주고 신경계나 호흡·순환계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민아·솔지·현아·신수지 등 많은 연예인들도 배드민턴을 통해 다이어트 효과를 봤다고 여러 TV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였으며, 국가대표 선수인 이용대도 처음에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우리부에도 많은 회원님들이 배드민턴을 통해 다이어트에 성공하신 사례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께서 저희 동호회를 찾아주시면 적극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께서 속으로 물으실지 모릅니다. 넌 뭐냐고…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안쳐서 그래요… 앞으로 배드민턴 열심히 치겠습니다).

배드민턴의 두 번째 매력은,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는 쌓이지만 제대로 이를 해소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뵐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활동형태가 달리고 치는 동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인 현대인의 파괴적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스트레스 해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올린 무게 5g, 길이 10cm도 안되는 조그만 셔틀콕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간 최고속도는 297km/h. 그 셔틀콕을 강하게 내리쳐 코트에 내리꽂힐 때의 쾌감은 쳐보신 분들만 알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게임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에 특효

그렇다면 배드민턴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 가질만한 어마어마한 운동량입니다. 기본적으로 배드민턴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손목·어깨·허리·무릎·발목 등 온몸을 사용하여 운동하는 전신운동입니다.

Y사에서 말해주는 배드민턴 1게임의 평균 이동거리는 4,000m 정도로, 1시간 정도 운동을 할 경우 315kcal 이상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조깅 시

배사모는…

이런 매력을 가진 배드민턴을 널리 알리고자 우리부 배드민턴 동호회, 애칭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줄여서 '배사모')'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역위원회 조영태 무역조사실장님을 회장으로 회원수 70명에 이르는 우리 동호회는 지난 2012년 7월 설립된 이래로 공식적으로는 매주 월, 목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 약 3시간 정도 자유롭게 팀을 구성하여 배드민턴을 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점심시간에는 세종시 연합대회 A조 (통상 배드민턴은 수준에 따라서 최고 수준인 A조부터 E조까지 나뉘어 진행합니다) 우승에 빛나는 광업등록 사무소 강무형 코치님의 레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호회의 가장 큰 장점은 '자유'입니다. 정말 쿨내 가득하게 운동하고 싶을 때 왔다가 가고 싶을 때 갑니다. 이러한 점이 많은 분들께서 큰 부담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목적홀로 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번씩 열정을 불태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배드민턴대회입니다. 우리 동호회에서는 정기적으로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하는데, 남자·여자·혼합 복식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는 우승컵을 두고 시합하며, 때때로 경품도 함께 걸어 투지를 불타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회원들 간 유대관계도 깊어지고 평소에 몰랐던 분들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 오셔도…

처음 동호회에 가입할 때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 '초보이고, 함께 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 오시면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파트너가 있을 것이며, 총무인 저에게 쪽지 주시면 자연스레 동호회원으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부 내 많은 운동 동호회 가운데에서 가장 강한 여성파워를 가지고 있기에 여성분들도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드민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력이기에 나이 들어서도 계속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 것 중 배드민턴만 한 운동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중독성에 빠져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라켓과 운동화를 준비하셔서 4층 다목적홀로 오세요! 우리 동호회에 오셔서 힘껏 스매시를 날리지 않으시겠습니까? MOTIE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윤선민** 사무관

가족나들이와 자녀 교육을 한번에!

‘세종플러스’는 세종시 인근의 가볼만한 곳, 즐길거리 등을 산업부 가족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지난 호부터 열게 된 자리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유초중등 아이가 있는 직원 여러분의 알찬 주말일정을 돕고자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다행히 반응이 나쁘지는(?) 않아서 다음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곳은 대전 유성에 위치한 지질박물관과 화폐박물관 입니다. 성격이 확연히 다른 두 곳을 한 지면에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좀 이상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박물관이 차로 1분 정도의 거리이고 각기 반나절 일정을 소화할 정도의 볼거리를 가지고 있어, 두 박물관을 연계하면 무리 없는 하루 일정이 나온다는 점!!! 자 그러면 저희 가족의 사례를 토대로 두 박물관을 소개해 볼까요?

1 화폐박물관에 가다



여기는 세종시. 오늘은 일요일 아침 7시. 좀 더 자고 싶다. 그러나 더 잘 수가 없다. 아이들이 침대에 올라와 아빠를 깨운다. 아..왜 아이들은 일요일만 되면 일찍 일어날까? 또 왜 밖으로 나가자고 할까.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아껴둔 ‘지질박물관과 화폐박물관’카드를 사용할 때가 되었군! 간단히 아침을 먹고 세종시를 출발한다. 대덕특구 내 외치한 화폐박물관에 먼저 가기로 했다. 30분도 안되어 박물관에 도착했다. 예상대로 박물관은 꼬마관람객으로 가득했다. 조폐공사 부설박물관이라 그런지 일층에 오만 원권부터 천 원권까지 전지(全紙)가 전시되어 있는데, 보기만 해도 지갑이 불룩(!)해지는 느낌이었다.

제1전시실에서 고대 화폐부터 상평통보까지 구경하고, 상평통보 주조하는 모형도 보고, 올림픽 주화(그것도 황금!) 등 기념주화도 보았다. 호돌이가 새겨진 기념주화를 보니 88올림픽도 떠오르고, 어째 아이들보다 내가 더 신나기 시작했다. 2층으로 올라가 제2전시실(지폐역사관), 제3전시실(위조방지홍보관)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우리가 지금 쓰는 지폐의 도안은 어떻게 하고, 또 위조방지를 위해 어떤 기술이 쓰이는지도 보았다. 지폐 한 장에도 많은 사연과 기술이 담겨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고, 또한 아이들을 위한 위폐감별 체험도 있어 유익하기도 하다.

마지막 전시관에서는 우표, 크리스마스 실과 다른 나라의 화폐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다닐 때 옛날 우표를 사기 위해 우표상 문턱이 닳도록 다녔던 터라 이런 우표들이 반갑기도 하면서도, 이제는 이메일에 밀려서 우표를 붙이고 편지를 보낸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현실이 좀 안타깝기도 했다.

화폐박물관 홈페이지 | museum.komsco.com
주소 및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가정동)
042-870-1000
운영시간 | 10: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정부지정 임시공휴일)
입장료 및 주차 | 무료

지질 박물관을 가다





화폐박물관을 나와 차로 ‘1분 거리’인 지질박물관에 왔다. 이곳은 과거 과천의 국가기술표준원 느낌이 물씬난다. 이곳은 지질연구소 부설기관이라고 하는데 박물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바로 보이는 공룡화석 복제본들이 아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차근차근 계획을 짜고 아이들에게 관람시켜주리라 마음먹었건만 세상일은 마음처럼 되지 않나보다. 아이들은 이미 아빠의 설명과 관람순서 따위는 무시하고 공룡화석 앞에서 난리법석이다.

이곳은 디지털 장비를 이용하여 아이들이 화석발굴, 복원 등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큰 화면을 보면서 발굴할 화석종류, 지역을 선택한 후 땅을 파고 돌을 깨고 붓으로 화석 위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과정 등을 화면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이외에도 시뮬레이션 장치를 이용해 익룡(물속에 사는 공룡)이 되어 공룡이 살던 시대의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 경험도 할 수 있어 아이들도 무척 좋아한다. 단, 줄이 길어서 시간이 촉박할 경우 체험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2층으로 올라가니 철광석, 구리 등은 물론 자수정, 다이아몬드 원석 등 귀금속까지 다양한수많은 보석, 광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아내는 이런 보석들을 보고서는 박물관 말고 집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이야기 했지만 나는 애써 못들은 척하였다.

2층에는 영화상영관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대박(!)이었다. 보통 박물관 내 영화 상영은 길어야 20분인데 이 곳은 공룡영화를 무려 1시간 40분이나 상영하는 것이었다. 그것도 개관 후부터 폐관 때까지 5~6회나 상영하는 것이었다. 나 같은 불량 아빠는 애들을 시간맞춰 영화 상영관에 보내고 무려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아이들 없이 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흐뭇하였다. 두 군데 박물관을 다녀와서 뿌듯한 마음에 세종시로 돌아가려는 순간, 아이들이 외친다. 아빠 다음에 또 와요! 그래…아이들이 오늘 하루 재미있었나 보구나. 이 즐거움을 세종플러스에 담아 주말 외출 행선지를 고민하는 산업부 직원 여러분과 계속 나눠야겠구나! MOTIE

2

지질박물관 홈페이지 | museum.kigam.re.kr
주소 및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042-868-3797
운영시간 | 10:00-17:00
(휴관일: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다음날, 신정, 설날연휴, 추석연휴, 근로자의 날, 정부지정 임시공휴일)
입장료 및 주차 | 역시 무료!



사진 에세이



대변인실 **임용혁** 주무관

하늘, 꽃에 취하다















하늘이 꽃향기에 단단히 취했던 지난 봄,
꽃과 풀의 어울림으로 온 세상이 찬란했다.
보아도 보아도 그립기만 한 예쁜 것들.
자연은 참 순하다.
언제 어느 때고 우리의 맑은 시선을 반갑게 맞는다.
누가 뭐라건 순순히 계절의 순리를 따르며 제 몫을 다한다.
지난 봄, 산업부도 분주히 움직이며
꽃처럼 온 세상을 물들였더랬다.

용어의 발견



창의산업정책과 **김건혁** 사무관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가 알아야 할 IT관련 용어들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 기념.
IT 관련 용어들을 선보입니다.



구글 딥마인드_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인공지능 자회사. 2010년 신경과학자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 인공지능전문가 셰인 레그(Shane Legg), 사업가인 무스타파 술레이만(Mustafa Suleyman), 세 사람이 영국에서 딥마인드 테크놀로지(DeepMind Technologies)라는 이름으로 공동 창업하였다. 2014년 구글이 4억 유로에 인수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s), 재강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 그리고 신경과학(neuroscience) 기반의 머신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

딥러닝_ 컴퓨터가 여러 데이터를 이용해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공 신경망(ANN: artificial neur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기계 학습 기술이다. 인간의 두뇌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 방식을 모방해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학습시킨다.

머신러닝_ 클라우드 컴퓨터가 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컴퓨터는 이후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과거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이를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다가올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특이점_ 미국 컴퓨터 과학자이자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기술부문 이사인 레이먼드 커즈와일이 제시한 개념. 커즈와일은 2005년 저서 「특이점이 온다」를 통해 2045년이면 인공지능(AI)이 모든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강력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무너지는 '특이점(singularity)'으로 정의했다.

바이두_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는 중국 최대 검색엔진 기업이다. 과거 구글의 '짝퉁' 정도로 여겨졌던 바이두는 이제 구글을 위협하는 존재로까지 성장했다. 최근 은행 등 금융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위챗(중국어로 웨이신)_ 텐센트가 2011년 1월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다. 위챗은 월 활성 사용자 수(MAU)가 5억 명인 플랫폼이다. 사실상 모든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챗을 쓰는 셈이다. 카카오톡의 월 활성 사용자 수는 2015년 8월 기준으로 4800만여 명이다.

인스타그램_ '인스턴트'(instant)와 '텔레그램'(telegram)이 더해진 단어로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다. '세상의 순간들을 포착하고 공유한다'(Capturing and sharing the world's moments)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출시됐다. 2012년 4월, 10억 달러에 구글에 인수된 이래 지난 2014년 12월 인스타그램은 전세계 월간 활동사용자(MAU) 수가 3억명을 돌파했으며, 총 300억 장의 사진이 게재되었다.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인스타그램에는 하루 평균 7000만 장의 사진이 올라와 공유되며, 인스타그램에 달리는 '좋아요'수는 25억개다.

스냅챗_ 사진과 동영상 공유에 특화된 모바일 메신저다. 스냅챗의 가장 큰 특징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이의 확인 시간을 설정해 일정 시간 후 메시지를 자동 삭제할 수 있는 이른바 '자기 파괴' 기능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5초로 시간을 맞추면 그가 확인한 후 5초 뒤에 자동 삭제되는 식이다. 2015년 〈포브스〉가 뽑은, 기업의 시장가치를 직원 수로 나눈 '직원 1인당 기업가치'가 가장 큰 회사이다.

넷플릭스_ 세계 최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 한달에 적게는 7.99 달러만 내면 영화와 TV 프로그램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다. '넷플릭스'라는 이름은 인터넷(NET)과 영화(flicks)에서 따왔다.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사업자로, 유료 가입자만 5700만 명에 이른다. 원래 미국에서 시작된 서비스지만, 가입자 5700만 중 1800만 명이 해외 구독자다.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미국 방송 업계 석권을 넘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전망이다.

크라우드소싱_ 군중(crowd)과 '아웃소싱 (outsourcing)'을 합성한 말로 인터넷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기업활동에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 와이어드매거진의 제프 하우가 만든 신조어다. 기업이 경영상 애로사항이나 개선방안 등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얻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서 지식을 얻는 개념이다. 기업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질문을 올리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이 올린 답변 중 마음에 드는 것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트러블 슈팅_ 정보기술(IT)업계의 용어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처리한다는 뜻이다. 정부 측에선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데 모여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조정 방식으로 불린다.

디지털 노마드_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인터넷망과 IT기기를 활용하여 일하는 디지털 유목민. 최근 커피숍에서 자주 찾을 수 있다.

킥스타터_ 2009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개인이나 기업이 상품 아이디어, 모금 목표액, 개발 완료 예정 시점 등을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킥스타터 회원이 후원자로 나서는 시스템이다. 2012년말 기준 크라우드 펀딩의 전체 시장 규모는 2,800만 달러(약 313억 원)에 이르며, 세계 460여 개 크라우드 펀딩 업체 중 가장 큰 서비스 업체이다.

홀로렌즈_ 공간에 입히는 시각적 마술. 홀로렌즈는 머리에 쓰는 디스플레이 장치(HMD)다.

증강현실_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다(가상현실은 자신(객체)과 배경·환경 모두 현실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를 사용). 증강현실은 또한 혼합현실(Mixed Reality, MR)이라고도 하는데, 비행기 제조사인 '보잉'사에서 1990년경 비행기 조립 과정에 가상의 이미지를 첨가하면서 '증강현실'이 처음으로 세상에 소개됐다.

로보어드바이저_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는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다.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통해 인간 프라이빗 뱅커(PB) 대신 자산관리를 해주는 로봇을 의미한다. MOTIE



재미있는 건강상식~

누구나 건강에 관심이 많은 만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건강정보들이 흘러다닌다. "~카더라"는 정보들을 따라해보기는 하지만 과연 정답일까? 고개를 갸웃거릴 때도 종종 있다. 잘못 알고 있던 건강상식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우리 생활에 응용해 보자.

1. 간염환자와 술잔을 돌리면 간염이 옮는다?

모임이나 회식 자리에서 꼭 술잔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 마지 못해 술잔을 받아들기는 하지만 간염이라도 옮지 않을까 걱정 된다. 술잔돌리기가 바람직한 문화는 아니지만 적어도 간염에 걸릴 염려는 안 해도 좋다.
간염환자와 술잔을 돌리거나 국물을 함께 먹더라도 전염되지 않기 때문이다. 간염은 모자간의 탯줄 감염, 불건전한 성접촉, 주사기, 면도기, 칫솔 등을 통해서만 전염된다.

2. 속 쓰릴 땐 우유를 마셔라?

속이 쓰릴 때 우유를 마시면 처음에는 속쓰림이 덜하다. 그 이유는 약알칼리성인 우유가 강한 산성인 위염을 중화하기 때문. 그러나 우유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이 분비가 되므로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속이 쓰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우유를 마시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소변, 참으면 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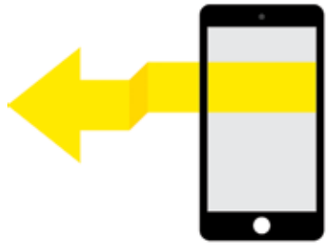
소변이 딱히 마렵지 않은데도 틈만 나면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있다. 방광은 소변을 일정량 저장하였다가 자연스럽게 배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억지로 쥐어짜는 것이 되므로 자연적 배출기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방광이 어느 정도 차있게 되면 방광을 통제하는 메시지가 두뇌에 전달되어 다른 일을 결정하는 데에도 통제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한다. 결정의 순간, 눈앞의 이득보다 장기적으로 이로운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고. 빠른 시간 안에 좀더 신중한 결정을 하려면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니 실생활에서 응용해 보시길 바란다.

4. 머리카락! 매일 감는 것이 좋을까?

두피 상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의 두피 청결상태를 기준으로 머리 감는 주기를 달리하는 것이 두피와 모발 건강을 위해 좋다.
보통 머리는 매일 감는 것보다 이틀에 한 번 정도 감는 것이 모발의 윤기와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이상적이다. 매일 샴푸하면 필요 이상으로 유분기가 제거되어 오히려 모발에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름기가 많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이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 먼지가 많은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샴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땀과 피지가 많이 나오는 여름철, 두세 번 머리를 감는다면 샴푸 양을 반만 사용해주는 것이 좋다.
가늘고 얇은 머리카락을 가졌거나 길이가 짧은 머리는 매일 감는 것이 좋다. 유분이 모발 전체에 쉽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길고 두꺼운 모발과 곱슬머리의 특징은 끝부분이 쉽게 건조해진다는 것이다. 머릿결을 자연스럽고 촉촉하게 해주는 유분이 머리카락 끝까지 닿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주일에 두세 번 감는 것이 좋다. 머리를 감지 않는 날에 좀 찝찝하다 싶으면 따뜻한 물로 한 번 헹구거나 드라이기를 이용해 스타일 정리를 해주면 된다. MOTIE

나날이 진화하며 일상생활과 업무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들.
실속있고 편리한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알아보자.

알아두면 유용한 스마트폰 앱



주차가 쉬워진다 〈파크히어〉, 〈아이파킹〉

때로는 운전보다 주차가 더 힘들다. 같은 골목을 30분 넘게 빙빙 돌기도 일쑤. 최근 빅데이터 기반의 주차 어플리케이션이 다수 출시 중이다. 주차공간을 찾아줄 뿐만 아니라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장을 예약할 수 있는 주차장 할인 예약 앱! 네비게이션 앱과 연동까지 가능해 복잡한 도심에서 차를 이용해 데이트할 때도 유용하다.

알람어플 〈잘잤니〉

매일 새로운 음악을 들려주는 알람 어플! 음악은 내 폰에 저장돼 있는 음악들과 어플에 있는 음악들이 랜덤 재생된다. 신선한 디자인 으로도 이목을 끄는 상쾌한 어플!



웅크리고 앉기 〈스쿼트〉

이 어플만 있으면 헬스장 안가도 될 듯! 스쿼트 + 푸시업 + 싯업 등 헬스코치가 짜준 것처럼 단계별로 짜임새 있게 운동할 수 있다. 감응신호를 이용해 운동 통계치를 뽑을 수 있고 소모한 칼로리까지 자동계산해 주는 아주 똑똑한 헬스코치 앱.



영화 필수앱 〈왓챠〉

영화정보부터 예매 추천까지 영화에 관한 다양한 정보 + 기능을 가지고 있는 영화 전문 어플리케이션! 자신이 평가한 영화들을 바탕으로 내게 맞는 영화들을 쏙쏙 추천해주는 영화 전문 앱이다.

smart phone application



세상에서 가장 쉽게 송금하는 법 〈Toss(토스)〉

10초만에 송금할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간편한 금융 앱.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후 문자와 ARS 전화 등을 통해 본인의 계좌를 인증할 수 있다.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금액과 받는 사람, 암호만 입력하면 되는데, 이 놀라운 간편함에 수수료 월 20회 면제 혜택까지 주어진다. 불편한 점이 있다면 큰 돈은 송금하기 어려우며, 아직 토스와 연계된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은행도 있다는 것.

에버노트 제작팀이 선보이는 스캔 앱 〈Evernote Scannable〉

스캐너가 필요하다면 주목! 생산성 앱 'Evernote'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에버노트 팀이 이번에는 스캔 앱 Evernote Scannable을 개발했다. 문서, 영수증, 명함을 비롯한 모든 종이를 완벽하게 스캔한다. 선명한 것은 물론이고 보정 효과도 뛰어나다. 문서를 인쇄해서 보관 하지 않고도, 본인의 태블릿으로 깔끔하게 스캔한 뒤 스크랩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앱이다.

핸드라이팅 앱 〈Carbo〉

사용자 본인의 아이디어를 쉽게 스케치할 수 있는 앱이다. Dropbox와 Evernote, iCloud 와의 호환성이 좋아 언제든지 파일을 불러와 수정을 한 뒤 저장할 수 있다. 또한 문서에 직접 그린 이미지를 추가하거나 메모를 남길 수도 있어 나름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작성한 파일을 다양한 카테고리를 통해 나눠 저장할 수도 있다. 메모에 기반한 앱이지만, 다양한 청사진들을 자유롭게 그려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다.

듀오링고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를 비롯한 많은 언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특한 앱이다. 앱 내 업그레이드도 없고, 유료 회원 가입제도 없는 말그대로 무료 그 자체인 앱. 매일 번역문 쓰기, 단어 맞추기, 마이크에 대고 말하기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통해 언어를 연습하게 된다. 다른 언어를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의 첫 관문 으로 매우 훌륭한 앱.

편집위원
소개

울림을 만드는사람들 20명



편집위원장
FTA서비스투자과
안홍상 서기관



편집간사
원전환경과
이영아 주무관



편집위원
통상정책총괄과
김준겸 사무관



편집위원
다자통상협력과
노정림 사무관



편집위원
중동아프리카통상과
윤선민 사무관



편집부간사
관리과
고운정 주무관



편집부간사
전력산업과
권용균 주무관



편집부간사
환경부 파견
김동욱 주무관



편집부간사
원전산업정책과
안여선 주무관



편집위원
산업정책과
윤영범 사무관



편집위원
기획재정부 파견
이예원 사무관



편집위원
전자부품과
이정남 사무관



편집위원
홍보담당관
임용택 주무관

※ 이하 가나다순



편집위원
전기전자표준과
고채린 주무관



편집위원
창의산업정책과
김건혁 사무관



편집위원
자동차항공과
김수희 사무관



편집위원
홍보담당관
임용혁 주무관



편집위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장선화 주무관



편집위원
아주통상과
정의라 사무관



편집위원
전력진흥과
조영길 사무관



이번호를 준비하며…



편집장 안홍상

유학시절 조별 과제를 할 때 애용하던 구X 닥스(Docs)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내가 쓴 글을 조원들이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채팅창과 메모 기능이 있어서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 굳이 만나서 같이 과제를 하거나 번거롭게 메일로 주고받지 않아도 되어 무척 편리했던 기억이 난다.

사보도 누군가 쓴 글에 다른 이의 글이 차곡차곡 쌓여 완성된다. 때로는 남이 작성한 글을 수정하고 그림이나 레이아웃(layout)도 바꾼다. 그러다가 모든 원고가 들어오고 편집이 끝나면 발간되어 산업부 가족 여러분에게 배포된다.

꼭.. 조원 각자가 합심하여 완성된 과제를 출력하여 제출하는 느낌이다. 과제가 잘 되었는지 교수님의 평가를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평가를 기다리며 가슴이 뛴다. 두근두근..

튼튼한 국가 재정의 새로운 시작, 新GO!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 안내

신고 대상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집행하는 경우
(복지 급여·서비스, 시설·운영자금, 연구개발자금, 정부 후원금 등)

[보조금 분야]
-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사업실적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편취 등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직원 허위 등록 등 인건비 부정 수급, 명의 대여 등
- 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 보조금시설 무단거래·담보설정 등

[연구개발비 분야]
-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 물품 구입
- 연구원 허위 등재, 인건비 입금 후 타계좌 재입금 요구 등 인건비 횡령
- 연구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등 정산서류 조작, 물품구입비 부풀리기 등

[복지분야]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실업급여)
- 공공부조 부정수급(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 의료, 주택 등의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부정수급(복지사업 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 등의 부정수급, 사무장 병원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 상담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 접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 ▶ 홈페이지 : www.acrc.go.kr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 팩 스 : (044) 200-7972
- ▶ 우편·방문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 스마트폰 앱 : 부패 공익신고 앱

신고 처리

자체 조사 후 검·경찰,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이첩

〈신고자 보호 보상〉
신고자 보호 :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Center for Reporting Public Subsidy Fraud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가족의 마음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사보 '울림'

산업통상자원부 044-203-5347, **FAX** 044-203-4768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www.motie.go.kr